

서울 7호선 바로 앞 초역세권 파격가 분양!

3.3㎡ 천만원대 단지내 상가!

(계약면적 평균 기준/부가세 별도)

초역세권 랜드마크 신상권!

천왕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스트리트형 상가
7호선 천왕역 바로 앞, 수익을 만드는 가치

계약금
1,000만원(1차)

7호선
천왕역

10년전 분양가 일23,000명 유동인구 특급상권!

주변 8,000세대 대로변 단지내상가! 권장업종 강추!!!

편의점/부동산/커피숍/제과점/병원/학원/프랜차이즈점등

천왕역 | 모아엘가 **트레뷰** 단지내 상가 선착순분양 **PREMIUM 6**

- 천왕역 초역세권 고정 배후수요 **多** 랜드마크 상가
도보/차량이용 상가 이용 편리, 고객/매출확보 유리
- 10년전 분양가, 거품을 뺀 **실속형 상가**
합리적 분양가, 안정적인 수익 단지내 상가
- 대로변 전면 5M~14M 이상 노출 (84%이상 노출)
넓은 전면 확보, 높은 광고효과, 다양한 연출 가능
- 초역세권 넓고 편리한 **자주식 주차**
천왕역 유동 일평균 23,000여명, 8,000여세대 주거배후
- 新 주거타운 선점 상가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최후순점 선점, 미래가치 상승의 비전
- 대형 생활용품점 **입점 예정**
국내 유명 생활용품점 입점 예정 상권가치

● 개발계획, 교통계획 등은 지자체의 사업진행과정에서 변경, 축소,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 단지, 공간설계 등은 실시사업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왕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스트리트형 상가

천왕역 | 모아엘가 **트레뷰**

분양 문의 **02-6951-4226**

시행사, 주식회사 이레에이치엔씨
시공사, ㈜모아주택산업
신약사, 코리아신약 주식회사

층호수는 선착순으로 지정됩니다!

“3·1운동 정신 되새겨 민족화합 위해 기도하자”

제38회 3·1절 민족화합기도회 열려

2025년 제38회 3.1절 민족화합기도회가 3월 1일 오전 서울 삼성제일교회(담임 윤성원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도회는 국가기도운동본부, 한국전력그룹선교회, C-LAMP, Korea CEDAR, 누가선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삼성제일교회, 충무교회, (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민족화합기도우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1986년 미국 Cedar Group에서 예배 중에 정근모 장로(전 과학기술처 장관, 전 명지대호서대 총장)는 민족화합을 위해 기도하라는 소명을 받고, 1987년 초 귀국해故 최태섭 장로(전 한국유리 회장, 전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고문)의 전폭적 지지로故 김인득 장로(전 백산그룹 회장),故 이한빈 장로(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故 서영훈 장로(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그해 3월 민족화합기도회를 발

족하고, 1988년 3월 1일 종로성결교회(현 삼성제일교회)에서 제1회 민족화합기도회를 가졌다.

성장용 목사(충무교회)가 사회를 본 1부 예배에선 이 훈 장로(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대표회장)가 대표기도를 드렸고, 백영현 장로(삼성제일교회)의 성경 봉독과 한국직장선교합창단의 특송 후 윤성원 목사(기성 전 총회장, 삼성제일교회)가 “다시 찾아온 삼일절에(눅 4:16-1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윤牧사는 “삼일운동은 단순한 저항운동 아니라 민족의 현실문제를 극복하려는 민족 운동이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약 1%인 20만 명 정도였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삼일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다”며 “또한 기독교는 수많은 희생자를 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든든히 세우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남북이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선 불행하게도 계엄 이후 대통령 탄



기도회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핵소추라는 엄청난 사건을 맞고 있다”며 “이 엄중한 시기에 다시 한 번 삼일절을 맞게 되었다. 민족화합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던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과 삼일운동의 정신을 되새겨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세상과 교회를 위한 기도’ 순서가 마련돼 오광석 장로(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이사장)와 정철주 장로(Korea CEDAR), 윤청모 장로(민족화합기도우원회)가 각각 대통령과 위정자들 및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를 위해, 한국교회의 연

합과 일치 및 치유와 회복을 위해,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이어 참석자들이 다같이 애국가를 제창했고, 홍신중 장로(삼성제일교회), 이성수 권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심은현 권사(충무교회), 이준성 집사(민족화합기도우원회)의 인도로 만세삼창을 했다. 예배는 김성만 목사(누가선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진행된 2부 세미나에선 먼저 정근모 장로(민족화합기도회 발기인)가 인사말을 전했다. 정 장로는 “삼일절을 맞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남북통일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이뤄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나라에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기독교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 있을 수 없어”

이후 함재봉 교수(한국학술연구원장, 전 연세대 교수)가 ‘기독교와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그는 “조선 사람들은 조선이 망하는 걸 슬퍼하지 않았다. 나라를 빼앗긴 건 슬퍼했지만 조선이 망한 것은 슬퍼하지 않았다. 조선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이라며 “유교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조선 전통을 거부했다. 그게 삼일운동에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삼일운동은 국권회복운동인데, 그것을 주도했던 이들 중 단 한 사람도 조선을 찾아 다시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대한민국은 근세사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가장 완벽하게 과거를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라고 했다.

함 교수에 따르면 조선의 백성들은 신분제 아래서 차별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았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양반과 천민들로 하여금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신분제를 극복했고, 남녀 차별을 없앴다. 또한 투표를 통해 스스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를 연습하게 했으며, 성경 번역을 통해 한글을 보급했다.

함 교수는 “이처럼 기독교는 조선을 근대화시켰고, 신분제 극복과 여성 해방을 가져왔으며, 투표와 한글을 보급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맞다. 교회나 교인 수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것이 기독교가 없었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노래를 함께 불렀고, 최신현 장로(C-Lamp)의 마침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진영 기자

북한,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 최하위권

‘최악 중 최악’ 국가로 분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2025 세계자유지수’에서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하며, ‘최악 중 최악’ 국가 그룹에 포함시켰다.

프리덤하우스가 27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평가하는 두 부문에서 총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았다.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부문에서는 40점 만점에 0점,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

부문에서는 60점 만점에 3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로 분류되었으며, 전 세계 208개국 및 지역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된 67개국 중에서도 북한, 에리트레아, 수단, 시리아 등 17개국을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으로 선정했다. 북한은 1973년 해당 보고서 발표가 시작된 이래 매년 최하위권을 기록해왔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는 핀란드로 나타났으며, 100점 만점을 받았다. 이어 노르웨이(99점), 덴마크·네덜란드·아일랜드·룩셈부르크·캐나다(각 97점)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미국은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34점,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 50점을 받아 총 84점을 기록했으며, 한국은 각각 32점과 49점으로 총 81점을 받았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자유 지수가 상승한 점도 주목됐다. 세네갈과 부탄은 ‘자유 국가’(Free)로 격상됐다. 세네갈은 퇴임 예정이었던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려 했으나 야당이 승리하며 민주적 절차가 지켜졌음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부탄은 헌법 개정과 선거 제도 도입을 통해 완전한 민주주의를 구축한 점이 반영됐다.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또한 자유 지수가 크게 상승했다. 방글라데시는 셰이크 하시나 총리에 대한 반발로 인해 정치적 경쟁과 시민 참여가 확대됐으며, 스리랑카의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정치적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요르단은

선거 개혁을 통해 ‘비자유 국가’에서 ‘부분적 자유 국가’(Partly Free)로 지위를 격상했다.

반면, 쿠웨이트, 니제르, 탄자니아, 태국 등 일부 국가는 자유 지수가 하락하며 ‘부분적 자유 국가’에서 ‘비자유 국가’

로 강등됐다. 투르크메니스탄, 남수단, 수단, 북한 등은 올해도 여전히 낮은 자유 지수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을 유지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 지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일부 국가들이 개선된 평가를 받았다

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극도로 낮은 수준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은혜 기자

PRUGIO

회사보유분 20세대

파격지원혜택

(2025.01.01~01.17 한시적용)

계약금 500만원 (1차)

2월 23일 이후 전매가능

반도체클러스터 최대수혜단지

3,724세대 미니신도시 (1단지 1,681세대)

단지내 에버랜드 조정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잔여세대 마감임박

계약금 500만원 (1차)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 본 제책물에 사용된 CG,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 개발계획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시행위탁사, 시공사, 시행사와 무관합니다.

84A 평면도

PRUGIO

총 3,724세대 미니 신도시 1단지 1,681세대 분양중

59㎡A·B / 84㎡A·B·C

1544-7780

“성령의 불 가득했던 강당” 2년 전 ‘애즈베리 부흥’ 이야기

볼드윈 부총장, 당시 상황 생생히 기록한 책 펴내 도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시대’

미국 켄터키주 월모어의 애즈베리대학교(Asbury University)에서 약 2년 전 일어난 부흥운동은 미국을 넘어 한국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당시 채플 이후 일부 학생들이 남아 기도모임을 계속했고, 이것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주목하는 부흥운동으로 이어졌다.

예배가 드러진 애즈베리대학교 채플에는 연일 빌디빌 없이 인파가 몰려, 채플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밖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현장에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애즈베리대학교에서 학생 생활 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라 토마스 볼드윈(Sarah Thomas Baldwin) 박사가

바로 그 때의 부흥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부어주시는 부흥의 시대-Z 세대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다움시대연구소)라는 제목의 책으로 펴냈다.

볼드윈 박사는 이 책에서 부흥의 시작으로 알려진 2023년 2월 8일부터 시작해 약 3주간의 이야기를 날짜와 시간대 별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애즈베리 부흥에 얽힌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그것을 직접 보고 느낀 저자의 생동감 넘치는 증언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저자는 2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온 도시가 휴즈(애즈베리대학교 휴즈 강당)의 문 앞에 모여든 듯 보였다. 1,500명 정도의 공간에 2,000명 이상이 몰려들었다. 발코니를 제외하고는 사람

들이 복도와 문간, 로비까지 가득 채웠으며, 무대 앞의 카펫은 모든 공간이 차 있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줄지어 앉아 무대 앞을 가로지르려 하면 누군가를 밟을 정도였다... 지금 나는 휴즈 강당에서 넘쳐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끝없는 예배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압도했다.”

저자 볼드윈 박사는 이 책의 말미에 애즈베리 부흥이 있고 1년이 지난 후의 상황을 기록한 ‘후기’를 남기기도 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눈에 띈다.

“진정으로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주 채플 이후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남아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캠퍼스 잔디밭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 함께 기도하는 학생들, 예수님께 새로운 헌신을 하는 일들과 참여는 우리 공동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낀다. 지난 (2023년) 2월 이후에도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지 않던 학생들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했던 것처럼 묻는다. ‘누군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책은 애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남성혁 장신대 선교학 교수가 번역했다. 남 교수는 역사 서문에서 “애즈베리 부흥에 관한 책을 기쁜 마음으로 번역하고 한국교회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교회와 학교마다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옮겨붙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

남 교수는 “애즈베리대학교 휴즈 강당에서 일어났던 과거 부흥의 기억과 기록이 2023년 부흥의 지혜를 더하여 준 것 같아, 이 도서의 기록이 또 다시 부어주실 하나님의 부흥에 관한 기대와 사모함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약 2년 전 애즈베리대학교 예배 당시 모습. ©류응렬 목사 페이스북

종려주일 예배와 수난주일 설교에 관하여

예장통합 제109회기 총회 예배학교세미나 열려

예장통합 제109회기 총회 예배학교세미나가 최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겔 37:14, 행 9:31)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총회 국내선교부가 주최하고 총회 예배학교가 주관했다. 1부 개회예배는 문장옥 목사(총회 국내외군·특수선교처 총무)의 인도로, 김영실 목사(부천노회 국내선교부장, 부천교회)의 기도, 성경봉독, 이춘복 목사(총회 예배학교 위원, 경기중앙교회)의 설교와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강연 순서에서는 ▲최진봉 교수(장신대)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의 예전-종려주일 예배' ▲조성현 교수(부산장신대)가 '수난주일 설교의 실제'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생명절기와 종려주일 최진봉 교수는 "종려주일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시작하지 않고 예배당 문밖 또는 교회의 바깥 공간(도상)에서 시작하여 예배실로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세상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구원의 여정을 오늘의 성도들이 축하하며 따르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주일 전, 교회는 성도 전체가 안전하게 찬양하며 행진할 길을 정한다. 예배 시간 전, 예배인도자를 비롯한 예배위원들은 미리 종려가지 성별과 행진이 시작될 지정된 바깥 장소에서 성도들을 기다리고, 안내위원은 예배시작 5분 전, 예배를 위해 예배당에 모여 있는 성도들을 예배인도자가 있는 장소로 안내한다"며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당 밖 지정된 장소

에 모두 모이면 인도자는 구원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려주일은 부활절 한 주 전인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주일이다. 이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억한다"며 "종려주일부터 시작하여 부활주일 전날까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시간들을 갖는다. 종려주일의 예식은 종려가지에 대한 축사의 기도를 행한 후, 종려 나뭇가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것을 들고 행진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공회 교회의 경우 성도들은 종려주일에 받은 종려 나뭇가지를 집으로 가져가 평년 잡화의 수요일 전까지 가정의 십자가에 걸어둔다"며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기억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여기서 절기 주제는 예수 구원의 구원장(호산나), 왕의 입성이며, 절기 색상은 빨강색(그리스도의 보혈), 절기 상징은 종려 나뭇가지와 새끼나귀"라고 했다.

◆종려수난주일 설교에 대해 이어 두 번째로 강연한 조성현 교수는 "설교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주석과 해석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 아래서 현대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청중에게 적용하는 선포와 증언"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종려주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중에 많은 사람들이 길가



이춘복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에 있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아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마 21:9)하면서 개산장군을 환영하듯이 예수님을 환영 한데서 연유한다"며 "이는 스가라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러나 군중들이 호산나(구원하소서)라고 외친 이유는 예수님을 세속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여 호산나를 외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이후 주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에 이 주간을 수난주간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한다"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독생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간이므로 '위대한 주간'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다면 어느 표현이 더 예배 신학적으로 합당한가. 고난주일은 한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지만 이는 예수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대화한 표현"이라며 "수난주일은 예수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에 종려주일 수난주일이라 더 합당하다고 본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고난이란 인간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과 시련을 의미하지만, 수난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의미하는 구속사적이



최진봉 교수가 예배를 시현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고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어보다 담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종려수난주일에 설교할 수 있는 본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에 관한 본문들(마 21:1-11; 막 11:1-10; 눅 19:28-40) ▲복음서에 있는 수난 본문들(마 26:14-25; 막 14:1-9; 눅 22:14-23) ▲구약의 말씀들(사 50:4-9; 시 22:1-11; 시 31:9-16)이 있다"며 수난주일 시 설교할 수 있는 본문 내용으로 ▲왜 찢리고 상하셨나(사 53:4-6) ▲십자가, 그리고 흔적(갈 6:14-18) 등이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종려수난주일, 수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는 청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수난 본문들,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청중이 깊게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에 설교자부터 십자가를 자람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일부터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세마니는 절의응답과 폐회 순서로 모두 마무리됐다. 장요한 기자

“만유구원론… 죽음 이후 변화의 가능성 열려 있다?”

김명용 박사, 최근 온신학TV서 ‘만유구원론’ 주제로 강연

김명용 박사(온신학 아카데미 원장, 장신대 전 총장)이 최근 유튜브 채널 '온신학TV'에서 '오늘의 중말론의 최대충격 - 만유구원론은 어떤 이론일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박사는 "1995년 몰트만 교수(Jürgen Moltmann 독일 신학자, 1926~2024)가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루이빌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그라베마이어 상을 수상했고, 구원론과 종말론에 있어서 엄청난 토론을 일으킨 책"이라고 했다.

이어 "몰트만 교수는 책을 출간하면서 '만유구원론'을 주장했다. 개신교 대다수 교회는 만유구원론을 교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심판론'을 가지고 있다"며 "이중심판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면 죽음과 더불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중심판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몰트만 교수의 주장이 틀렸다고 한다"며 "종교적으로 만유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만유구원론에서 '만유'라는 개념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받는 그 세계가 마지막 세계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만유구원"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운명이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죽음 이후에 변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것"이라며 "초대교회의 정신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열고 있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잘못 발전된 것이 가톨릭교회의 연옥에 관한 교리"라고 했다.

이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잘못된 연옥의 교리를 잘라내고, 불행하게도 죽음 이후에 변화될 가능성, 죽은 자의 세계에서 변화될 가능성을 다 잘라내 버리고 죽는 순간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으로 만들어버린 신학이 개신교 신학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 성경과 초대교회 신학 정신은 죽음 이후에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만유가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 구원 사역의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론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만유구원론"이

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만유구원론은 몰트만 교수가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신학자 오리겐을 통해 알려졌다"며 "만유회복의 이론이라고 표현되기도 했고, 총괄경신의 이론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만유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론"이라며 "우리는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가는데,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표현되며, 구약에선 스올, 신약에선 하데스라고 표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접맥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며, 또한 초대교회의 정신이 아니었다"며 "만유구원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경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며 베드로전서 4장 6절, 3장 19절을 예로 들었다.

또한 "사도신경에서는 본래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선 그 내용이 없다. 바로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데스의 세계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조상의 고백이며 성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히 몰트만 교수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동방교회 안에는 보편적으로 있었던 현상이었다"며 "여기서 세 교회의 종말론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먼저, 개신교는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기 전에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톨릭교회의 종말론에는 층이 세 가지가 있다. 의로운 자는 천국으로 가고, 애매한 자는 연옥에서 고생하고, 죄가 많은 자는 지옥에 간다"며 "동방교회의 경우 의로운 자는 천국에 가지만, 나머지는 죽은 자의 세계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죽은 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기독교 종말론의 관점이 달라진다"며, 만유구원론은 신학적 논쟁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주제임을 말했다. 장요한 기자

장신대, 북한이탈주민 신학생 위한 장학금 전달식 개최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사)길동무, 장신대에 장학금 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와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길동무가 북한이탈주민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을 위해 최근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김운용)를 방문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본교 총장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서기 이상태 목사, 도농사회적 총무 류성환 목사, 도농사회적 실장 이명숙 목사, 길동무 이사 신성재 목사, 본교 남북한평화신

학연구소 소장, 탈북민 재학생 4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운용 총장과 환담을 나눈 후,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2021년부터 매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도농사회적가 여러 교회의 후원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탈북민 재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올해는 신대원 학생 4인, 대학부 학생 1인, 대학원 학생 1인이 수혜자로 선정됐다.




장학금 전달식 기념 사진. ©장신대

김운용 총장은 "장학금이 탈북민 신학생들에게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과

북한선교의 일꾼 양성을 위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요한 기자

교회 맞춤 대출



우리는행 근무 경험으로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드립니다.

☒ 금리는 내리고, 금액은 올리고

☒ 요양원, 아파트

☒ 기타 부동산



박주영 010-8995-3909

히람파트너스

신협 20-0000849

기독교 유일의 24면 일간지!!

기록일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나요!

https://pf.kakao.com/_QNvAK/friend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록일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발행되는 일간지로서, 기독교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신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53 크로스빌딩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www.cdaily.co.kr

성실기독교공사



개척교회 염가 공사 / 파이프 탐, 종각 종탑, 대형 십자가 시공, LED 네온 설치 네온 수리, 완공 후 철저한 A/S 보장



☎(02)923-2466 / HP : 010-5344-2466 / 080-938-0404 <부천지사> (032)349-2466 / FAX : (02)923-2466 홈페이지 http://ss04.barunweb.co.kr

캐스빌상가 / tower2466@naver.com

대표 : 박진홍 (성실교회 안수집사)

타코마제일침례교회, 교회 창립 50주년 맞아 특별 기도회 개최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창립 50주년 특별 기도회 인도하는 김대준 목사 ©교회 측 제공

“사랑과 섬김을 드러내는 교회,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되자”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송경원 목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김대준 목사(LA 비전교회)를 강사로 교회 창립 50주년 특별 기도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은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50년 동안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번 기도회는 창립 50주년이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창립 50주년을 통해 교회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일환으로 진행됐다. 기도회 강사로 나선 김대준牧사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전보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섬김을 드러내는 교회, 기도에 힘

쓰며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그는 또 온 성도들이 일생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을 소개하면서,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연합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모두 '사랑'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사랑은 가족과 공동체를 치유할 뿐 아니라 관계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라며 “예수님의 사랑이 감정적인 움직임이 아닌, 원수도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목사는 또한 기도의 본질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격려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화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형식적인 기도를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도는 불평과 불만을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며 “화개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며, 기도를 통해 환경을 뛰어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김민선 기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순복음타코마제일교회 창립 37주년 감사예배 드려

순복음타코마제일교회(담임 최병삼 목사)는 지난 23일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나아가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순복음타코마제일교회 성도들은 지난 37년 간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사랑을 돌아보며,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로 결단했다.

또 교회가 후원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선교 사역을 공유하며, 교회 개척지역과 신학교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최병삼 목사(사진)는 교회의 본질과 선교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김민선 기자

최 목사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안이며, 또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순복음타코마제일교회가 운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자”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했다. 김민선 기자



뉴송 장로교회 제10대 담임에 장영호 목사 취임

뉴송 장로교회(구: 시애틀 한인장로교회) 제10대 담임으로 장영호 목사(43)(사진)가 취임한다. 뉴송 장로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은 오는 3월 16일(주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영호 목사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뉴송 장로교회 전도사 및 부목사로 사역하며 행정과 예배, 장년, 청년 사역을 두루 담당했었다. 그러다 2023년 뉴송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 아프리카 가나에서 현지 교회

개척 및 지도자 양성 사역을 해왔다. 2년 동안 가나에서 사역하며 많은 결실도 얻었다. 10년 동안 뉴송 장로교회를 이끌어 온 감병기 목사는 쉼과 회복이 필요해 은퇴하게 됐으며, 뉴송 장로교회 성도들은 고민 끝에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영호 목사를 차기 담임 목사로 맞게 됐다. 장영호 목사는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리를 맡겨 주신 은혜에 감사하드린다”며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장영호 목사는 2004 도미해 그 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고, 2017년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는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장 목사는 남가주 동신교회 교육 전도사, 하나님의 은혜 교회 전도사, 시애틀 한인 장로 교회 전도사 및 부목사, 아프리카 가나 선교사로 사역했었다. 가족으로는 김선욱 사모와 딸 1명을 두고 있다. 김민선 기자



ABHE 정회원으로서 승인된 후 기념촬영. © 학교 측 제공

GCU, ABHE 정회원으로서 최종 승인

조지아센추럴대학교(GCU, Georgia Central University, 총장 김창환 박사)가 ABHE(Association Biblical Higher Education) 정회원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한인 설립 대학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ABHE에서 동시에 인가를 받은 정회

원 학교로 거듭난 것이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ABHE 연차총회에서 기본 소식을 접한 김창환 총장과 임원진들은 “GCU가 미국 유수 종합대학으로 인가받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현희 기자

부고

로템 장로교회 정필흠 원로 목사 별세

천국 환송예배 3월 5일 오전 10시 씨니사이드 장의사

재미 고신 총회장을 역임하고 로템 장로교회 원로 목사로 섬긴 고 정필흠(배석) 목사(사진)가 지난 2월 16일 102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천국환송예배는 재미고신 총회, 재미

고신 서부노회, 로템 장로교회, 필그림 선교교회, 지혜 선교교회 주관으로 3월 5일 오전 10시 씨니사이드 장의사에서 드리며, 하관예배는 같은 날 오후 12시 씨니프레스 포레스트 공원묘지에서 드린다.

예배 집례는 로템장로교회 담임, 재미 고신 서부노회장 박일룡 목사가 맡는다. 문의: 714-222-1110, 562-833-2070, 213-700-7575 일사: 2025년 3월 5일(수) 오전 10시 씨니사이드 장의사: 12301, Magnolia St, Garden Grove, CA 92841. 김민선 기자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 45대 회장에 안무실 회장 연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회장 안무실)는 지난 2월 2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제45대 회장으로 안무실 회장을 재추대했다. 당초 제45대 회장으로 추대된 임성배 상임고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하며, 대신 제45대 이사장직을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상임이사회는 신임 이사장 임성배의 사회로 진행됐다. 안무실 회장은 이사회에서 다가오는 3.1절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밴쿠버한인회관 건축위원장으로 양창모 상임이사, 건축위원회 간사로 이흥복 상임이사, 회계로 임만식 상임이사가 선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안무실 회장, 임성



왼쪽부터 임만식, 지병주, 임성배, 안무실, 양창모, 이흥복 ©주최 측 제공

지병주 현 건축위원장은 건축위원회 관련 보고를 통해 양창모 신임 위원장에게 건축기금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안무실 회장, 임성

배 이사장, 지병주 건축위원장, 양창모 상임이사, 이흥복 상임이사, 임만식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한경수 상임이사와 정영세 상임이사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김민선 기자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탈라해상풍력 전경

new
renewable
energy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상위 20개국은?

남반구 기독교인의 높은 출산율 및 문화적·사회적·정치적 요인 작용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GCR)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상위 20개국을 발표하고, 각국의 기독교 성장 촉진 요인들을 공개했다. 20개국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됐다.

GCR은 “기독교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남반구 아시아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기독교의 성장률은 열정적인 신앙을 기반한 커뮤니티의 확산에서부터 도시 중심지의 변형하는 교회 설립에 이르기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의 성장은 인구 성장률이 높은 국가와 기독교 신앙이 새로우며, 청소년들에게 신앙이 받아들여지는 지역에서 특히 강력하다”며 “글로벌 사우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이 기독교 인구가 크게 증가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많은 서구 국가에서 기독교는 더 느린 성장을 경험했다”면서 “이주, 높은 출산율, 부흥 운동의 영향,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 등이 모두 기독교의 빠른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빠른 기독교 성장을 이룬 상위 20개국은 나이지리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 에티오피아, 미국, 케냐, 대한민국, 멕시코, 우간다, 베트남, 가나, 아르헨티나, 이란, 모잠비크, 탄자니아, 러시아, 콜롬비아가 선정됐다.

GCR은 나이지리아 기독교의 성장 요인으로 “높은 출산율과 기독교 카리스마 운동”을 꼽고,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기독교 강국으로, 폭력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단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기독교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가정교회, 지하교회 성장, 도시 복음 전파”로, “정부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독교 인구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약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젊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농촌 지역의 복음 전파”라며 “인도의 기독교 공동체는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소외 계층에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희망과 포용의 메시지에 이끌리고 있다. 또 기독교는 힌두 민족주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기독교 카리스마적 영향”으로,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로 알려졌으나 급속한 기독교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정부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인구 국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브라질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기독교 성장, 인구 증가”로, “마약 카르텔과 범죄 조직에 의해 주도되는 라틴아메리카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브라질은 여전히 강력한 가톨릭 뿌리를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인구 중 하나이다. 1억 8,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했다.

필리핀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기독교와의 강력한 문화적 유대감”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극단주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기독교 인구가 있으며, 이들은 계속 성장하는 카리스마적인 신앙 공동체에 중점을 둔다. 이 나라의 거의 80%가 신자라고 말한다”고 소개했다.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높은 출산율, 복음 전파”로, “높은 출산율과 강력한 복음주의적 존재감에 힘입어 기독교 성장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인구의 약 20%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다.

마국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복음주의 운동”이라며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 중 하나이며, 비종교 집단에서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케냐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청년층 관심, 높은 출산율”이라며 “극단주의 폭력, 홍수 등으로 인한 이주 문제 속에서 젊은 인구는 기독교에 이끌려 기독교 집단의 꾸준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050년까지 케냐는 최대 9,5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복음주의 운동”으로, “한국은 특히 도시 전문가 중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고, 강력한 선교사 영향력으로 유명하다.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고, 불교도는 17%”라고 말했다.

멕시코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높은 출산율, 복음적 성장”으로, “국가의 마약 카르텔 폭력을 비난하는 노골적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이 심화하는 가운데, 복음주의 운동이 급속히 성장했다”고 밝혔다.

우간다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높은 출산율, 복음 선교”로, “기독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의 82%가 기독교인”이라고 알렸고, 베트남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선교 활동, 지하 교회”로, “주로 카리스마적인 기독교의 영향으로 지하



GCR은 “이주, 높은 출산율, 부흥 운동의 영향 등이 모두 기독교의 빠른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GCR

교회를 통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나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카리스마적 성장, 청소년 관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고, 기독교는 이 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다. 카리스마적인 기독교 단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카리스마적 확장”으로, “특히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기독교가 번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지하 교회 네트워크”로, “기독교 공동체는 자치만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희망과 자유에 대한 메시지에 이끌린다”고 말했다.

모잠비크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높은 출산율, 선교 활동”으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탄자니아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청소년 참여, 복음 선교”로, “기독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독교는 가장 두드러진 종교 중 하나”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선교사 영향, 복음주의 운동”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교회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고 알렸고, 콜롬비아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복음적 성장”으로, “악명 높고 폭력적인 마약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회가 활발하며 기독교 단체는 인상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GCR은 이러한 기독교 성장의 실질적인 원인으로 첫째 ‘급속한 대중적 운동’을 꼽았다. 기독교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 급속히 확산하면

서, 이러한 대중적 운동이 신앙에 대한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접근으로 새로운 신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출산율과 인구 증가’이다. 남반구의 인구 증가율은 기독교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출산율은 아프리카 기독교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도시화와 교육’이다. 더 많은 사람이 도시로 이주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독교는 도시 환경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특히 젊은 전문가와 교육받은 중산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의 국가로 퍼져 나가면서 꾸준한 성장을 경험하고, 아프리카는 출산율 증가, 인구 증가, 카리스마 운동 확대에 힘입어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가 대륙에서 가장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 인구가 성장하는 나라들에 속하며, 가정교회, 지하교회, 선교사의 영향력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GCR은 “고든콘웰 신학대학원의 세계 기독교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기독교가 새로운 역동적인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남반구에서 계속 증가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3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 그렇다”라며 “미래를 내다보면 이 상위 20개국이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글로벌 기독교의 풍경을 형성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제113차 세계선교연대포럼 개최 “선교는 삶이고, 삶이 선교 돼야”

전 불가리아개혁장로교신학교 학장 김호동 선교사 설교
최요한 세계선교연대 대표 “하나님 은혜에 감사”

세계선교연대(세선연, 대표 최요한)가 1일 서울 명동 서울프린스호텔 별관 2층 컨벤션홀에서 제113차 세계선교연대포럼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김주덕 장로(국제선교신문 사장, 명동국제교회)의 찬양 인도에 이어 강창렬 목사(세계선교총회신학원 원장)의 예배 인도로 드려진 1부 예배에서는 고종욱 장로(한국시민사회단체연합 총재)의 대표기도, 이교현 목사(지구촌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의 성경 봉독 후 김성수 안수집사(명동국제교회)가 특송으로 은혜를 끼쳤다.

이날 김호동 선교사(전 GMS 사무총장, 전 불가리아개혁장로교신학교 학장)는 ‘선교는 삶이다(18:1~4)라는 주제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부터 불려가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줄 믿는다”라며 “그래서 선교는 삶이고, 삶이 선교가 돼야 한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선교가 삶임을 깨달아야 하고, 삶이 선교적이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교사역에서 어떤 사역은 존귀하고 천하다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삶을 산다면 그것이 선교”라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구원의 일에 초점이 맞춰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줄 믿는다”라고 말했다.

예배는 김정욱 필리핀 선교사의 헌금 기도와 찬양사역자 정은영 전도사의 헌금송에 이어 김주덕 장로가 광고하고, 박재천 목사(문인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세계선교연대 대표 최요한 목사(명동국제교회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2부 선교포럼 및 사역소개는 최태선 목사(샘물교회)가 뜨겁게 기도회를 인도한 후

고종욱 장로의 인사, 박재천 목사의 성서 ‘3.1 불꽃’ 낭독, 방근숙 찬양사역자의 찬양, 최은혜 태국 선교사의 인도로 3.1절 노래 제창과 성서낭독 등이 진행됐다. 최요한 목사는 이날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다 2010년 귀국해서 2011년도에 명동국제교회를 세우고 2012년부터 세계선교연대포럼을 시작했는데 벌써 1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라며 “113차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수고로 지금까지 온 줄 믿는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종욱 장로는 지난 1월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경험을 전하며 “오는 4월에도 30명을 데리고 한미평화 건립을 위해 미국에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종득 장로(국제선교협의회 회장)는 106주년 3.1절을 맞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는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었다”라며 “113차에 이르는 세계선교연대 기도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기독교인이 다시 깨어나는 기회가 되었다. 이곳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더욱 크게 쓰실 줄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배정선 불가리아 선교사, 김정모 일본 선교사, 김기일 우간다 선교사, 전관재 멕시코 선교사, 화가 김정욱 필리핀 선교사, 마라토너 조명원 집사 등이 인사 및 사역소개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세계선교연대는 2012년 시작된 이래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서울프린스호텔 별관 2층 컨벤션홀에서 세계선교연대포럼을 개최하고, 2022년 12월 제100차 포럼을 연 이후 이듬해 3월부터는 격월로 첫째 주 토요일에 진행해 선교사들과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들이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누고 위로와 힘, 재충전을 얻는 장이 되어왔다. 이지희 기자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3.1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지희 기자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센스는 함께!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우리 같이 할래요?

신협에너지본부

한국가스공사

난방 할 때는
문을 꼭 닫기!!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20도 준수하기!!

안쓰는 제품
전원 끄기!!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당신의 에너지 센스!

온도주의

신협에너지본부

한국가스공사

美주택도시개발부 장관 기도하며 트럼프 내각 첫 회의 시작

미국 텍사스 대형교회 목사이자 주택 도시개발부 장관인 스콧 터너는 지난달 26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내각 회의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터너 목사는 “아버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는 “오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당신의 자비는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고 합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내각이 국가를 이끌 기

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임명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하도록 기쁨 부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터너 목사는 대통령, 부통령, 내각의 모든 구성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는 “주님, 우리는 의로운 명확함으로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잠재적 기관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직업에서 이 나라 사람들을 섬기면서, 아버지, 우리

는 당신 앞에서 겸손해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섬기라고 부르신 방식으로 이끌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아버지, 성경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당신을 존경하며 당신의 합당한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아버지, 이 나라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미국 국민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이 모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화에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 터너 목사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터너 목사는 기도 영상을 트윗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내각 회의에서 개회 기도를 드린 것은 평생의 영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감사합니다. 저를 신뢰하여 주택도시개발부를 이끌게 하시고, 전국의 미국인들을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터너 목사는 트럼프 행정부 17에서 백악관 기회 및 활성화 위원회의 전무 이사를 지낸 뒤 이번 달 초 HUD 장관으로 확정됐다.

이미경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 내각 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도하고 있다. ©트위터 영상 캡처

美 플로리다 성공회 교회 3천 번째 교인 세례 “하나님 손길”

미국 플로리다에 소재한 한 성공회 교회는 교단 전체의 쇠퇴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인 수가 3천명이라는 이정표를 달성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사라소타 구세주 교회(Church of the Redeemer of Sarasota)는 지난 2월 16일(이하 현지시간) 케이지 제인 클레그와 루비 메이 스코어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교인 수가 3천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미국 플로리다 사라소타의 리디머교회가 3천번째와 3천1번째 교인의 세례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리디머 교회

두 아기는 각각 3천번째와 3천1번째를 대표했고, 교구는 두 숫자를 나타낸 금색 풍선으로 이 행사를 축하했다.

교회는 CP에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내 두 아기는 세례가 끝나자마자 기립 박수를 받았다고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교회 사제인 찰스턴 윌슨 신부는 “하나님의 손길이 ‘리디머(Redeemer)’에 분명히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놀라운 이정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의 초점은 새로운 기독 교인을 만드는 것과 모든 기독교인을 새롭게 만드는 데 두 배로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리디머 교회에는 150명의 새 신자가 등록했으며 올해는 47명이 새 신자로 등록했다.

윌슨 신부는 교회의 성장에 대해 “예수님은 리디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계시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비밀 무기’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리디머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교구와 연결된 사람들이 자비로운 그리스도, 즉 성경의 예수님과 매우 깊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연결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덧붙혔다.

리디머 교회의 성장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상당한 쇠퇴를 겪은 대부분의 다른 종교 단체와 마찬가지로 성공회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이다.

2010년 성공회 교단의 회원 수는 2백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이 교단의 교인 수는 약 154만 7천 명이 다.

수년간 교인 수의 감소가 계속되었지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연속 예배 참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평균 참석자 수가 약 41만 1천명, 2022년에는 약 37만 3천명, 2021년

에는 약 31만 2천명이었다.

지난해 손 로우 목사가 미국 성공회의 새로운 수석 주교로 취임하면서, 교단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도자인 마이클 커리 목사의 뒤를 이었다.

로우 목사는 취임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 “교회와 교구가 혼자서 할 수 없다”라며 “우리의 상호 의존성, 함께 사역할 필요성,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탱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교구와 기관의 집합이 아니며, 일을 하는 방식의 집합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며 “이 일, 말과 행동으로 예수의 부활과 삶을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공회 교회를 부르신 일이며, 지금과 항상 하나의 교회로서 함께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마크롱 “트럼프, 유럽에 관세 부과하면 보복 관세”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해 25%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FP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포르투갈을 국빈 방문 중인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EU는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인들도 이에 대응할 것이다. 따라서 보복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듭 “발표된 대로 4월 초 유럽 제품에 대해 (25%) 수준의 관세가 부과

된다면 유럽인들은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모든 당사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미국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나톨루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관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어려웠으며 “희망을 거의 갖지 못한 채 (미국을) 떠났다”고도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7년 간 유럽의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옹호해왔다”며 유럽은 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국방, 기술, 경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일한 해답은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

던 루이스 몬테네그로 포르투갈 총리도 “물론 유럽은 (미국에 대해) 관세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미국을 망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고 곧 발표할 것이다. 25%가 될 것”이라며 EU에 대한 관세를 예고했다.

EU는 중국과 함께 미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무역 파트너 2곳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다음주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를 언급하며 세금이 “일반적으로(generally)”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폰 데어 라이엔 “EU, 인도와 올해 안 세계 최대규모 FTA 체결”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최근 EU와 인도가 올해 안에 오랫동안 지연돼온 양측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무역 및 기술, 연결성 국방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뉴델리의 한 싱크탱크 연설에서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야심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와 인도 간 FTA는 전 세계 모든 FTA 협정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확

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나의 모든 약속을 믿어도 좋다”고 했다. 그녀는 지난달 27일부터 인도를 방문했고, EU 회원국 정상들과 동행했다.

인도와 EU는 2021년 오랫동안 보류돼온 FTA 회담을 재개했지만 자동차와 알코올 음료와 같은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걸림돌이 돼 왔다. 인도와 EU는 외교 정책, 안보, 기술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EU는 미국의 잠재적 관세에 직면하여 인도와의 FTA 협정을 마무리짓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EU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미국과 중국을 앞지르는 인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20232024 회계연도 인도와 EU 간 총교역량은 1300억 달러(약 190조원)를 넘어서 지난 10년 간 약 90% 증가했다. 6000개가 넘는 유럽 기업들이 인도에도 진출해 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와 인도가 금세기의 결정적인 동반자 관계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방문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모디 총리와 나는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EU-인도 전략 파트너십을 한 단계 끌어올릴 때”라고 말했다.

유세진 기자





셰프 에드워드의 선택

1등* 저당두유 매일두유



셰프 에드워드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R을 확인해주세요!

매일두유 제품은 온라인 및 전국 할인매장, 슈퍼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처 문의: 매일상담센터 1588-1539

*칸타 코리아 월드패널 사업부 2021-2023년 한국 저당 및 무당 두유 시장 내 제조사별 점유율 기준



(주) 한국비건인증원 인증

한국 사회, 6년 만에 최고 수준의 갈등 인식

진보-보수 갈등 심화... 정부 신뢰도는 여전히 낮아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한 사회적 갈등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최근 발간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은 4점 만점에 3.04점으로 평가됐다.

갈등 유형별 조사에서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3.52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3.35점), 2023년(3.42점)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상승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이 청년 및 노년층보다 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 거주자가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더 높은 갈등을 체감했다.

그 외 주요 갈등은 ▲지역 간(수도권과 지방) 갈등 3.06점 ▲노사 갈등(정규직과 비정규직) 2.97점 ▲빈부 갈등 2.96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 2.81점 순이었다. 반면, 기존 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2.65점)과 젠더 갈등(2.6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는 사법부(43.65%)가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행정부(39.07%)와 입법부(24.59%)가 그 뒤를 이었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매우 신뢰한다'(4.08%), '다소 신뢰한다'(39.57%)로 집계됐으며,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56.34%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32.5%) 대비 11.15%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국민이 불신을 드러냈다.

행정부 신뢰도는 2014년 35.1%에서 2021년 47.91%로 상승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39.07%를 기록했다. 입법부 신뢰도는 가장 낮았으며,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2.26%, '다소 신뢰한다'는 22.33%,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75.41%에 달했다.

한편 2024년 사회통합 수준은 10점 만점에 4.3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4.59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3.99점)의 사회통합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중소도시(4.30점)와 대도시(4.39점)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4.01점)가 고졸(4.19점) 및 대졸 이상(4.48점)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나래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37명, 세이브코리아 기도회 참석

김기현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대 안돼”

3.1절 106주년인 3월 1일,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총 37명으로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윤재옥·박대출·이현승·이종배·추경호·송언석·성일종·김정재·이만화·김석가·정점사·김은혜·권영진·박수영·유상범·이인선·구자근·정동만·장동혁·강대식·강민국·서일준·김미애·이종욱·서천호·강명구·김장겸·임종득·김종양·박성훈·조지연·강선영·정희용 의원이다.

이들을 대표해 발언한 김기현 의원은 “여기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이셨다. 오늘이 3.1절 106주년인데 우리 독립을 민

초들이 이뤄낸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진술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개인의 안일함 보다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가시발걸이라도 가겠다고 결단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다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힘, 누구보다 앞장서는 많은 국민들의 힘,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세이브 코리아,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외침이 하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의 3.1절 집회에 대거 참석했다. ©뉴스시스

에 꼭 상달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헌법학자 “마은혁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대 이인호 교수, 현재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결정 비판



헌법학자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사진)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결정의 핵심 내용

이 교수는 이번 결정(2025헌라1)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을 뿐,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명하는 청구는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간 부작위를 다룰 경우 권한 침해 여부만 확인할 뿐, 새로운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은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결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접적인 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의 권한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아닌 ‘재판관 선출권’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되었다고 했지만, 헌법 제111조 제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권한은 ‘재판관 선출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구성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국회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국회)도 심판청구서에서 스스로 ‘재판관 선출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넘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장 단독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법한가?

이 교수는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어떻게 소송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장이 국회의 대표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국회의장의 대표권이 본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권한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지지한다’는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것이 사후적으로 청구 적법성을 보완했다고 해석한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본회의 의결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해석 문제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대통령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갖는 독립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면, 국회의 선출만으로 헌법재판관이 자동으로 임명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대통령제의 원칙과 맞지 않으며,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의무 여부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국회의 권한 침해를 확인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헌법기관 간의 권한 다툼에서 특정 기관의 행위를 강제하는 형식적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이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와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접적인 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임명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결론 지었다.

박용국 기자

전영준 교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노무현 탄핵 기각 사례 비교

전영준 화신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사진)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는 만큼, 재판관들의 성향과 진영 논리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25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제1차 변론으로 종결되면서, 이제 관심은 인용이나 기각이냐에 집중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탄핵 인용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약 53%, 기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나왔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으로는 거의 50대 50의 접전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지만, 현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반대 여론이 7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현재는 3명이 인용, 5명이



기각, 1명이 각하를 결정해 탄핵이 기각됐다”며 “헌법재판소는 당시 판결에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수용 역시 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볼 때 탄핵 사유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문형배(문재인 대통령 지명), 이미선(문재인 대통령 지명), 정계선(더불어민주당 국회 추천)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형두(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정정미(김명수 대법원장 지명)는 중도, 정형식(윤석열 대통령 지명), 김복형(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조한창(국민의힘 국회 추천)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탄핵 선고에서도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인용 의견 6명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며 “특히,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재판관

이 기각 의견을 냈고, 정정미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같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던 사례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현재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크며, 이번 탄핵심판이 법리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그 이유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할 것이다”며 “당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불신하는 상황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현재 이재명 대표나 법아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할 만큼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대통령의 고도한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론이 50대 50으로 갈리고 있는 만큼, 이번 탄핵심판의 결과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박용국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태국, 몬타냐드 기독교 난민 60여 명 체포·위구르족 40명 中 강제 송환

크리스천포스트(CP)는 태국 방콕 당국 이 베트남에서 박해를 피해 온 몬타냐드(Montagnard) 기독교 난민 60여 명을 체포했다고 지난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P는 태국 정부는 40명의 위구르족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방콕 인근에서 기도 및 예배를 드리던 몬타냐드 기독교인 6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남성, 여성, 어린이와 함께 임신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이들은 대부분 법적 서류 없이 태국에 체류한 혐의로 구금됐으며, 일부는 범인이 부과한 벌금(약 120달러)을 납부하지 못해 계속 구금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을 태국 이민 당국에 인계했으며, 벌금을 내지 못한 이들은 8일간의 징역형

을 받은 뒤 방콕 이민 수용소인 수안 플루(Suan Plu)로 이송될 예정이다. 현재 일부 몬타냐드 난민들은 유엔난민기구(UNHCR)에 등록되어 있으며, 최소 43명이 태국에서 발급한 난민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태국 당국은 이들을 즉각 베트남으로 송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추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CP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몬타냐드 인권단체 ‘몬타냐드 정의를 위한 연대(Montagnards Stand For Justice, MSFJ)’의 활동가들도 체포됐다고 밝혔다. MSFJ 창립자는 2024년 중반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태국 당국에 의해 체포된 바 있으며, 현재 태국 항소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MSFJ가 지난해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와 연관이 있다며 이들 테러 조직으로 지정



베트남 몬타그나르들이 프놈펜으로 공송되기 위해 라타나키리 주 반롱에 있는 비행기로 걸어가고 있다. 수백 명의 베트남 몬타그나르들이 억압적인 베트남 정부를 떠나 캄보디아로 걸어가 해외에서의 더 나은 삶을 희망하고 있다. ©Christian Post

했으나, MSFJ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태국에는 4,000명 이상의 베트남 난민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신앙이

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 베트남 정부의 박해를 피해 망명한 상태다. 그러나 태국은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

지 않아, 이들은 국제법에 따른 난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지난 8일 중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피한 위구르족 40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기독교 연대 세계(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에 따르면, 방콕 이민 수용소에서 창문이 가려진 차량 두 대가 위구르족을 태운 채 출발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중국 관영매체 CCTV는 “중국 불법 이민자 40명이 본국으로 송환됐다”고 보도했으며, 공개된 사진에는 위구르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2014년 3월 중국을 탈출해 태국으로 넘어온 약 300명의 위구르족 중 일부로, 당시 체포된 300명 중 상당수는 타키로 이송됐으나, 109명은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바 있다.

CSW는 현재 방콕 끄렁뽀 중앙교도소(Klong Prem Central Prison)에 5명의 위구르족이, 방콕 이민 수용소에 3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이번 위구르족 강제 송환 조치를 “가장 강력한 여조로 규탄한다”며 “중국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지 않으며, 위구르족들은 박해, 강제노동,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태국은 오랜 동맹국으로서 UN 고문방지협약과 강제 실종 방지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태국 국민들의 오랜 인도적 전통과도 맞지 않으며, 인권 보호에 대한 태국의 헌신과 모순된다”고 했다. 미국 방콕 대사관도 성명을 통해 “이전의 유사한 강제 송환이 폭력적인 보복 공격을 초래한 사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승연 기자

인도에서 개종 시도 혐의로 징역 5년 선고받은 기독교 부부, 보석으로 석방

법원, 반(反)개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부부에 보석 허가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강제 개종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던 기독교인 부부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다. 기독교계는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가 개종 혐의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무죄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연대 월드

와이드(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에 따르면,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의 러크나우 벤치가 지난달 이들 부부에게 보석을 허가했으며, 이후 몇 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다. 조제(Jose)와 시자 파파찬(Sheeja

Pappachan) 부부는 지난 1월 22일, 우타르프라데시주의 “반(反)개종법”인 ‘불법 종교 개종 금지법’(Prohibition of Unlawful Conversion of Religion Act)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각 2만 5천 루피(약 300달러)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당국은 이들이 2022년 성탄절 행사에서 저소득 계층인 달리트(Dalit)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종 유인을 조직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함께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 소속 주의원이 제기한 고소장을 근거로 기소를 진행했으며, 검찰 측은 이 사건에 ‘불가촉천민 및 부족 보호법’(Scheduled Castes and Scheduled Tribes (Prevention of Atrocities) Act) 조항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부부는 법정에서 자신들은

단순히 교육을 장려하고, 공동체 식사를 마련하며, 성경을 배포했을 뿐 강제 개종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개종을 조건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부인했으며,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술을 멀리하고 자녀 교육에 힘을 것을 권장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CSW 회장 마빈 토마스(Mervyn Thomas)는 “조제와 시자 파파찬 부부가 유죄 판결 후 비교적 빠르게 보석을 허가받은 점은 다행이지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며 “이런 법의 애매한 조항들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CSW는 우타르프라데시 당국에 “현재 강제 개종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반(反)개종법이 위헌임을 인정해 이들에 대해 부부는 법정에서 자신들은

인도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2개 주에서는 강제 개종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 중이다. 이들 법은 강제 개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금지 조항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대부분의 선고 활동과 종교적 접근이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우타르프라데시에서만 최소 80명의 기독교인이 유사한 혐의로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델리에 기반을 둔 기독교 단체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포럼(United Christian Forum, UCF)’의 전국 코디네이터인 A.C. 마이클(A.C. Michael)은 “개종 시도 혐의만으로 내려진 유죄 판결은 삼급 법원의 심사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타르프라데시의 반(反)개종법은 2024년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피해자나 그 직계 가족만 고소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제3자가 개종 관련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독교 단체들은 법이 더욱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은혜 기자

탈레반, 영국인 부부 포함 외국인 4명 구금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당국이 영국인 부부와 중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4명을 구금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체포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탈레반 측은 “특정 고려사항(certain considerations)”이 있다고만 언급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고 있다. 영국 BBC와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적의 피터 레이놀즈(79)와 아내 바비(75)는 지난 1일 아프가니스탄 바미얀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탈레반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18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다. 해당 프로젝트는 탈레반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노동과 12세 이상 소녀들의 교육을 금지한 탈레반의 정책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탈레반 내무부 대변인 압둘 마틴 카니

는 “아프가니스탄 신분증을 소지한 영국인 2명과 중국 및 미국 국적을 가진 1명, 그리고 그들의 통역사 1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신원 확인과 체포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만 덧붙였다. 레이놀즈 부부는 체포 직후 자녀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사흘 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2주가 넘도록 가족들은 부모의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다. 부부의 자녀들은 탈레반에 석방을 호소하며 “부모님이 체포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몸값 협상에 응하거나 인질로 거래되느니 차라리 목숨을 희생하겠다고 말했다”며 부모의 의사를 전했다. 영국 외무부는 영국 국적자 2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구금된 사실을 인지하고



탈레반에 체포된 레이놀즈 부부 ©B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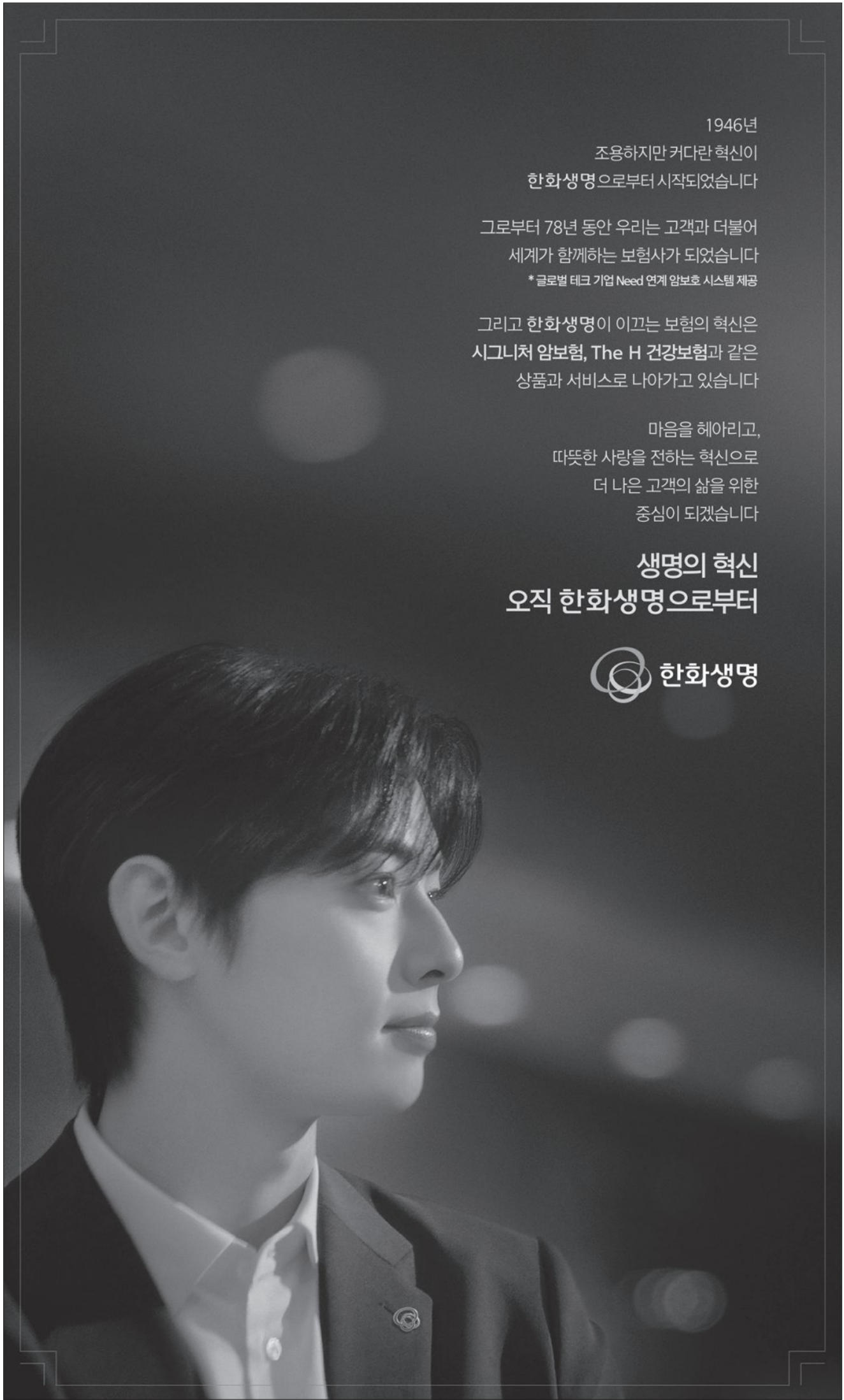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탈레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수도 카불에 대사관을 두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외교적 지원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탈레반은 2022년 여성의 NGO 활동을 금지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여성을 고용하는 모든 NGO의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여성의 교육과 노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체포가 이러한 정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은혜 기자

“콩고서 기독교인 70명 참수된 채 발견”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풀리)는 “2주 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기독교인 70명이 참수된 채 발견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국토 면적이 매우 큰 국가에 속하고 기독교인 인구도 많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동부 국경을 따라 기독교인을 극심하게 박해하고 있다”며 “주요 박해 세력 중 하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연합민주군’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기독교인 마을이 습격당하고, 교회가 파괴되고, 수백 명의 성도가 잔혹하게 살해되고 있다”고 했다. 불과 2주 전, 현지 여러 마을에서 납치된 기독교인 70명이 북동부의 카상가 마을의 한 교회 안에서 참수된 채 발견됐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용의자로 의심되는 연합민주군 대원들이 기독교인 주민들을 한 개신교 교회 안에 감금했다가, 결박하고 정글을 칼로 참수했다고 한다. 지난 1월, 연합민주군의 공격으로 15명이 사망한 후, 콩고민주공화국 북기부주의 목회자들은 기독교인을 겨냥한 폭력이 종종 자행되고 있다. 노형구 기자



폐허가 된 교회 현장의 모습 ©한국VOM



성경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구절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로빈 슈마허의 기고글인 '성경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구절은?'(Is this the most embarrassing verse in the Bible?)을 최근 게재했다.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는 슈마허는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많은 책을 냈고 미국 내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비판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마태복음 24:34)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자신의 재림이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생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는 의미일까?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 회의론적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도 그렇게 해석했다. 그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Why I am not a Christian)라는 에세이에서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재림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증명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다.”



C. S. 루이스도 「세상의 마지막 밤」(The World's Last Night)에서 회의론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목시적(종말론적) 믿음은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신약성경을 보면, 그들은 모두 재림이 자신의 생애 중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더욱 난감한 점은, 그들이 그렇게 믿은 이유인데, 그 이유가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그들의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믿음을 공유하셨고, 사실상 만들어내셨다. 그분은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틀렸다.”

이어서 루이스는 자신의 견해로 돌아와서 다소 충격적인 말을 덧붙인다. “이것은 확실히 성경에서 가장 난감한 구절이다. 그런데도 그로부터 불과 14년이 뒤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당혹스러운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실수’와 ‘무지’에 대한 고백이 나란히 놓여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복음서 기자들이 편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는가? 만약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알지 못하셨다면, 정통 기독교 교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었을까? 더 나아가, 어떤 사실을 모르셨다는 것과 잘

못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 잘못된 말씀을 하셨다면, 다른 어떤 것도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는가?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따라서 죄 없으시고, 무오하시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회의론자 바트 어만(Bart Ehrman)은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었는가」(How Jesus Became God)라는 책을 썼으며, 신약성경의 저자들과 교회가 예수님의 신성을 창작해냈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점이다. 하지만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으며, 이 복음서들이 요한복음보다 훨씬 일찍 쓰였다고 지적해왔다. 만약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다면, 마태, 마가, 누가가 그것을 빼뜨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는 예수님의 신성이 공관복음서(마태, 마가, 누가복음)와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내용을 별도의 글에서 다룬 적이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적 진리라면, C. 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 “난감한” 실수를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마태복음 24:34의 의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마태복음 24:34) 여기서 핵심 질문은 “세대”(generation)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다.

헬라이어 단어 genea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 인종이나 민족(예: 유대 민족), 일정한 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들(예: 특정 시대를 사는 세대), 특정한 시대나 시기(예: 한 시대의 흐름). 성경 학자들은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 여러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당시 살아 있던 세대에 국한시키셨다고 믿는 학자는 없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묘사하신 “모든 일”은 1세기에 일어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1:43에서 그 당시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떠났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그 세대가 재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 된다.

따라서 일부 신학자들(예: 찰스 라이리)은 genea가 유대 민족을 의미한다고 보고, 저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살

아 있는 세대”, 즉 대환난의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어떤 해석이든 간에 핵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이 1세기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예수님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36의 의미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36)

여기서 예수님의 무오성(틀리지 않으심)과 전지성(모든 것을 아심)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성육신(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의 신비와 관련이 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점진적으로 성장하셨다고 말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52)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전지성 일부를 제한하셨다고 한다. “오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7) 따라서 예수님은 성육신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제한을 받으셨지만, 현재는 전지성을 회복하셨다.

C. S. 루이스는 훌륭한 사상가였지만, 이 부분에서는 오판한 것 같다. 예수님은 결코 틀리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

최승연 기자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의 중요성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쉐리 워드 CEO의 기고글인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의 위험성’(The danger of working FOR God and not WITH Him)을 1일(현지 시간) 게재했다.

쉐리 워드 CEO는 Square Tree Publishing & Productions의 CEO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나는 1985년 남부 캘리포니아의 록웰 인터내셔널(Rockwell International)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우주 왕복선 챌린저(Challenger)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우리의 책상은 국제우주정거장(ISS)만큼 거대한 격납고 안에 있었고, 가슴 높이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어 주변 사람들을 모두 볼 수 있었다.

1980년대 중반, NASA는 우주여행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사회와 교사인 뉴햄프셔 출신의 크리스타 매클리프(Christa McAuliffe)를 최초의 민간인 승무원으로 선정했다. 그녀는 우주에서

“궁극의 현장 학습”(The Ultimate Field Trip)과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나아갈 길”(Where We’ve Been, Where We’re Going)이라는 두 개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1986년 1월 28일, 회사는 대형 TV 화면을 설치해 우리가 챌린저의 발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발사 순간, 동료들과 환호하며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그러나 73초 후, 챌린저는 폭발했다.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내 기억 속에, 그리고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마치 2001년 9·11 테러 당시 느꼈던 감정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직접 참여한 일이었다. 이후 조사 결과, 추운 날씨로 인해 고무 O-링이 손상된 것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나의 작은 부품, 유난히 추운 밤, 시기를 놓친 발사,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우주 왕복선을 파괴했고 승무원 전원의 목숨을 앗아갔다.

만약 기온이 더 높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불행하게도, 챌린저는 잘못된 타이밍에

발사된 것이었다.

◆너무 이른 ‘발사’는 위험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움직이면 영적으로도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 세상은 성과, 생산성, 지표에 집착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work FOR God)을 우선시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partner WITH God)을 놓치고 있다.

마치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는 더 많은 교인,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소셜 미디어 팔로워를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로 변질되기 쉽다.

한 번은 내가 진행하는 스퀘어 트리 퍼블리싱(Square Tree Publishing) 행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람을 발사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그들의 책, 제품, 서비스보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멈춰 섰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이었다.

더 큰 플랫폼, 더 높은 판매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 만약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모든 성공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영적 ‘발사’를 준비하는 법

챌린저 사고를 통해 NASA가 O-링 문제를 간과한 것처럼, 우리도 내면의 문제를 무시한 채 너무 빨리 ‘발사’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르게 준비해야 할까?

내면의 치유 (Inner healing): 하나님께서 다루고 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가까이 그분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전문가,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프로젝트를 빨리 시작하고 싶다는 이유로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겸손 유지 (Stay low):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성공이 찾아와도 그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지 말라.

배움을 지속하기 (Always learning):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Bring others): 나만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위에 서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된 질서다. 다른 사람을 높이면, 모두 함께 올라갈 수 있다. 멘토링, 협력, 나눔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미션을 준비하셨고, 당신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쓰신다. 하지만 너무 일찍 움직이면, 챌린저처럼 압박 속에서 무너지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당신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과정에 완전히 순종할 때, 그분은 당신을 상상도 못 할 방식으로 ‘발사’하실 것이다.

최승연 기자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회: 2022 - 1618 - 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뻥뻥통),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 - 082 - 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상품 및 구입문의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박형룡 박사의 3·1 독립운동!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대신대 총장

31운동 106주년이다. 31운동은 기독교 대표 16명을 포함해서 주로 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었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은 지방으로 확산 확대되었다. 박형룡은 기독교인 이면서 애국애족의 청년이었다. 당시 평양 숭실전문학교 학생이었던 박형룡은, 기악과 성악을 하는 음악인들로 구성된 '순회 전도대'를 결성하였고, 지방 순회 강연을 했다. 그의 나이 겨우 24세에 불과한 앓던 청년이었다.

그는 1920년 4월 초, 순회 전도대원의

설교 책임자로 배편에 올라 부산에서 목포로 가던 중, 남해를 통과하면서 시를 썼다. 그는 남해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저녁에 1절을 짓고, 이튿날 새벽에 2절을 지었다. 그로부터 세월이 30년이 흐른 후 1950년 10월 13일 저녁 목포 근 해상 군용선상에서 북한 공산군이 몰려가고 북진하는 중에 환도하는 피난민 성도들을 위한 예배 중에 설교의 마지막에 이 시(詩)를 낭독하고 과거를 회상했다. 박형룡의 시(詩) 가운데 꼭 100년이 넘는 가장 오래된 시(詩)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詩) 두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소개하는 시(詩)는 '충무공(忠武公)'이고, 그다음은 '목포 감옥에서'이다.

[충무공(忠武公)]
진도 섬이 여기더니 충무공(忠武公)이 그리워라

거북선 어디 가고 빈 물결만 출렁출렁 물 있고 그 배 없으니 눈물겨워 하노라
충무공 가신 뒤에 유수광음(流水光陰) 3백여 년
거북선 뜨던 물에 만국 수군 모였구나
오늘에 거북선 없어도 만국함대 여기 있네

두 번째로 소개할 시(詩)는 '목포 감옥에서'이다. 박형룡은 1920년 4월 9일, 당시 평양 숭실 전문학교의 전도대원 중에 수석 연사로 발탁되어, 4월 7일 목포 양동 교회에서 '하늘의 칼'이란 제목으로 1,300명이 넘는 청중들 앞에서 뜨겁게 설교를 했다. 당시 목포의 인구가 15,000명이었으니, 10분의 1이 그 집회에 참석한 셈이다. 그의 설교는 일종의 전도 강

연이었지만,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설교였다. 박형룡 박사는 '일제는 반드시 패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청중들에게 강연했다. 즉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일본은 반드시 심판과 징계를 받아 패망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였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감시가 강화되던 시기에 박형룡은 대담한 설교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박형룡은 목포 유달산에 올라가 종일 기도하고, 이튿날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아침 7시 20분경에 막 광주로 출발하려고 할 때, 박형룡은 목포 경찰서 박 형사에 의해 체포되어 유치장 2개월, 징식재판으로 감옥 8개월 도합 10개월 동안 영어(圖圖)의 생활을 했었다. 그의 감방문에는 '보안법 위반자라는 죄명이 붙어 있었고, 독립 만

세를 부르다 잡혀 온 청년들과 한방에 한동안 있다가 다시 독방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시조를 썼다.

[목포 감옥에서]
유달산 해 기울어 석양이 된 때
목포부 연지동 20번지의
높은 담 철창 속에 들어 왔구나
성명은 변경하여 하꾸온유고(440호)
기호는 낮아져서 오마에르다
간수도 노 호령에 떨고 있으니
영어(圖圖) 중에 이 신세 가련 하구나

박형룡 박사는 신학자로서 개혁주의 교의학을 완성했고, 한국교회의 교부로서 수많은 강연과 설교를 해 왔다. 그는 소시적부터 탁월한 웅변술이 있었고, 평양 숭실 전문학교에서 신교육을 받았

다. 또 중국 남경 금능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기독교 변증학'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문필가이자 설교가이고, 시조 시인이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시조를 지어서 설교 끝에 자신의 자작시를 낭독하기도 했었다.

필자는 몇 해 전, 호남기독교교회의 텃줄이라 할 수 있고, 호남에서 제일 큰 '목포 양동교회를 직접 방문하였다. 유진벨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목포 양동교회는 호남의 관문이자, 31운동의 거점이 되어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만세운동에 앞장선 교회이기도 하다.

어느 의미로 보나 우리는 박형룡 박사를 자유대한민국의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애국자요, 위대한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진리를 따르리라



김희보 은퇴 목사
예장 통합 용전노회

[말씀과 명상(41)] 좁은 문: 지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고린도후서 13:8-9a)

여기서 '진리'(알레테이아)는 일반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뜻한다.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끝내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바라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리가 자신의 명예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진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甘受)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로 부터 자책 없는 사도라는 혹평을 받고 버림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가 바울이었다.

영혼의 완성을 내부에서 추구하는 여주인공 알리사가 등장하는 작품이 앙드레 지드(Andre Gide, 1869-1961)의 <좁은 문>(La Porte Etroite, 1909)이다. 제롬과 그의 외사촌누이 알리사는 개신교신

앙을 가진 부유한 부르주아 계층 출신으로, 청교도적이며 이상주의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 의사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제롬의 학업을 위해 파리로 이사한다.

제롬은 매년 여름 리아브르에 있는 외삼촌 뷔폴랭 댁에서 두 살 연상인 외사촌 누이 알리사와 함께 방학을 보낸다. 외숙모 뤼실은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다 가출한다. 제롬은 알리사가 그러한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며 신비로운 알리사의 모습을 사랑하게 된다.

제롬은 알리사가 함께 보타에 목사의 좁은 문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狹窄)하여 찾는 이가 적음 아니라"

알리사의 여동생 줄리에트도 제롬을 남모르게 사랑하지만 언니에게 제롬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다. 알리사도 제롬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육체적 욕망이 올바른 것인지, 또한 제롬의 사랑 속에도 자신과 같은 육체적 욕망이 존재하는지 확신을 얻지 못한다.

알리사는 육체적 사랑과 인간적 행복을 포기하고 고행과 죽음을 통한 하나님 아래서의 영혼이 합일(合一)되는 경지로 승화하고자 결심한다. 그러나 수녀원

으로 도피할 궁리를 한다. 3년의 세월이 흐른 후,

맑은 공기가 미소 짓는 듯하고, 두 사람의 마음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난 어느 아침. "알리사, 줄리에트도 결혼하여 이제 행복스러우니 우리도 서둘러야....." 알리사가 시선을 제롬에게서 돌린 채 말하였다. "너와 함께 있을 때면 이런 행복도 있구나 싶게 행복스러워.....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태어난 게 아니지 않나?"

"그럼 영혼은 행복 이외에 무엇을 추구하?" 제롬의 물음에 알리사는 소근거리듯 말하였다. "거룩함이자....." 제롬의 모든 행복은 날개를 벌려 하늘을 향하여 제롬에게서 떠나버리고 말았다. "네가 없으면 나는 영혼의 거룩함을 얻지 못할 게 아니냐?"

그날 만찬 때 알리사는 紫水晶(자수정) 목걸이를 걸지 않았다. 제롬은 쓸쓸한 마음으로 알리사의 결을 따랐다. 알리사는 "내가 수정목걸이를 걸지 않고 만찬에 나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게서 떠나 줘" 하고 미리 선언했던 것이다.

수녀원에서 죽은 알리사의 노트에는 다음 구절이 적혀 있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게는 제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당신에게 바치기 위하여 제롬을 내게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의 개입을 고대하는 이민 교계



민중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원로목사
KCMUSA 이사장

창 던지는 자의 실로암

이민 사회에 기도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에는 아침, 저녁으로 한인 커뮤니티에 기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부터는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각각 수백 명의 성도가 모여 고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민 사회 한 모퉁이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갈등하고 고뇌하는 나라를 선하게 이끄시길 바랍니다.

오늘 2월 28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30분에 걸쳐서,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다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주조선일보LA가 남가주 한인 지도자들과 상공인을 초청하여 조찬기도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부요"(렘 9:23-24)라는 제목으로 살림교회 김준식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이어서 부족한 제가 기도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해(한현숙 목사),

미국 한인 사회의 평강과 발전을 위해(김영일 목사), 남가주 한인 상공인을 위해(김재권 장로),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최학량 목사)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를 통한 기도는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 속에서 시대를 개혁하는 독립변수가 되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오직 말씀"의 터전에 기반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실패한 프랑스 앙시앵 레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이라는 무신론 혁명으로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서구 기독교 지성은 프랑스 혁명을 변혁의 이상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덜란드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반대하는 "반혁명당"(Anti-revolutionary party)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청교도 정치에 대한 기념비적 연구를 남긴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는 급진적인 혁명의 전통은 오히려 개신교도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가치로 세상을 개혁하려는 교회는 시대를 바꾸는 독립변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구의 문명을 선도하는 많은 나라들은 소위 종교개혁이라는 영적 전통을 공동기반으로 공유하고 있는 나라이며, 이를 통해 시대를 개혁한 나라들입니다. 루터의 1517년 종교개혁선언을 이어받은 독일, 쾰른과 쾰른의 개혁으로 변화된 스위스, 쾰른의 사상이 흘러

들어간 장로교를 가진 스코틀랜드, 왕당파에 대항하여 공화제를 시행한 청교도 혁명(1642-1951)의 영국, 그리고 독립전쟁 중 4차례나 기도의 날을 가지며 독립한 미국은 그 심원한 공통 기반으로 성경과 기도라는 영적 지하수를 공유했음을 보입니다.

이런 기도회의 내빈 중 특별히 상공인으로서 활약하시는 분들이 나와 현재의 척박한 상황 속에서 난관을 극복하시는 다양한 지혜와 깨달음을 나누어주셨습니다. 47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지금의 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어렵다" 고백합니다. 지금은 아직 "불확실성"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정책 발표는 급진적이지만, 아직 유가도 떨어지지 않았고, 불경기의 기조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와 연동되기 때문에, 여러 상공인이 공통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로봇과 인공지능(AI) 관련 사업만이 불황을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컨설팅까지 이제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상황이니, 시대의 변혁은 한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특히 고국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속히 정치적 어려움을 종식하고 일어나, 새로운 나라로 발돋움하게 하소서" "주님의 지혜로 정치경제적 난관을 기회로 바꾸는 민족되게 하소서" 간절한 민족의 눈물이 하늘에 상달되어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시 126:6) 하소서.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상담치유 봉사 하여 드립니다.

심리적으로 사기 당하는 병 마음의 병
치매와 건망증 기억상실증 스트레스
근심걱정 억압과 분노 공황장애
우울증 노이로제 정서불안 불안신경증
신경과민증 초조하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집중이 안되고 안절부절하고
기름이 두근거리고 우울증 율화증 합병
불면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는 병
뒷골이 뻐기고 손발이 저리고 입이
자주 마르고 예민하여 잘 놀라는 병
심리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속 시원히 상담하여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의학지도교수 (MANSON)
목사 **이종운**
문의: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움 6길 4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α(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향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양봉선교회 양봉 무료 교육

- 목적** 농어촌 목회자에게 무료 양봉교육을 통해서 교회자립과 목회자 생활 안정을 위함.
- 대상** 농촌, 어촌, 초교파 목회자
- 접수** 3월 10일 -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010-8813-0191 문자(지역, 교회, 목회자 성명)
042-633-8311 유선
- 인원** 접수순 10교회(1교회 목회자 부부도 가능함)
- 설명회** 25년 3월 21일 오후 2시
- 장소** 대전충신평생교육원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5)
- 교육** 매주 토요일 예정
- 특전** 교육비 전액 장학
(양봉관리지도사 자격증 취득 가능함)
- 주관** 한국양봉선교회
- 기타** 전화 상담 사절함.
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문의 042-633-8311, 010-8813-0191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입고 누르기만 하면 후끈~후끈~ 추위걱정 끝!

GOSKA

겨울철 출퇴근, 등하교, 군대에서... / 실외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
겨울 캠핑을 즐기시는 분... 낚시, 골프, 등산가실때...

실속있는 보온, 더 얇지만 **따뜻해진 소재**

보온 발열조끼

특별할인 파격행사

개인 및 단체주문 환영



블랙



와인



네이비(곤색)



아이보리

파격행사가 ▶ 98,000원(батери 포함)

색상 : 블랙, 와인, 네이비(곤색), 아이보리 사이즈 : 90(S), 95(M), 100(L), 105(XL), 110(XXL)


확실한보온성 / 간편한 버튼 / 세련된 디자인



온도조절 3단계 ▶ 고온(적색) 45℃ / 중온(백색) 35℃ / 저온(청색) 25℃
※ батери 시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구입문의 / **010-5260-9517** 신한은행 110-195-067840 예금주: 태영

겨울철 실외에서 근무하거나 일하시는 분들께...




made in NORWAY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원활한
혈액순환!




하루
2캡슐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고품질
노르웨이산



항산화
건강까지



하프물개
오메가3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매일묵상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시니

【예레미야 애가 3: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것은 “여호와와 부분적으로 나의 기업이라”는 뜻도 아니요 “여호와가 내 기업 안에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영혼의 기업의 총체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거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의 은혜나 그의 사랑이나 그의 언약만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택하셨고 우리는 그를 우리의 기업으로 택했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업을 먼저 택해 주셨음에 틀림없다는 것,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자신을 위해

우리의 기업을 절대 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의 뜻에 따라 정말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사랑으로 불타네.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나도 그 답례로 하나님을 택한다네”

여호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도 남을 만큼 충족한,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족한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스스로 족한 분이라면 우리



를 위해서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인간의 소욕을 다 만족시켜 준다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은 자신이 원하던 것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다시 무언가 부족해서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기업되신 하나님 안에

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시 73:25)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마땅히 우리에게 그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천국으로 날아가 그곳에 거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시 16:6).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백성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 줍시다.

이렇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속 8:23)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듭시다.

찰스 스필전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날 새부터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독교 철학 (1)

이 글은 에드워즈 목사님이 로크의 인식론을 어떻게 수용하여 기독교 인식론으로 발전시켰는지를 보여준다.

참고 - 에드워즈의 존재론은 뉴턴과 연결된다면, 인식론은 주로 로크와 캄브리지의 신플라톤주의자와 연결된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로크의 인식론을 참고하여, 인간의 신 인식론은 감각적으로 주입된 성향, 경향성이라고 증명한다.

로크 - 타블라 라사 --- 감각 --- 사물 --- 단순관념(감성적 지식) --- 복합관념(이성)
에드워즈 - 인간의 마음 --- 감각 --- 하나님(성령의 주입) --- 성향, 경향성(감성, 이성)

〈로크와 에드워즈의 인식론 비교〉
에드워즈는 인간 자체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물론 사변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나, 실재적으로는 모른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계시해주셔야 하나님을 알(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역사

하신다. 로크를 참고해보자. 로크는 우리의 마음에는 본유관념이 없다. 어떤 실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대신 감각이 있다. 이 감각에 1차 성질이 도장처럼 찍히면 단순관념이 생기고, 이것이 복합되면 복합관념이 생긴다. 즉, 인간의 마음은 수동적이지, 능동적으로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드워즈는 인간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성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역사하신다. 마음에 역사하실 때, 성향과 의지가 발생한다. 성향과 의지란, 이성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인다. 왜냐하면 성향과 의지란, 이미 이성을 넘어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충격을 받았다고 하자. 먼저 감각을 통해 느끼고, 그 다음에 해석된다. 즉, 감각의 충격에 의해 이성으로 그것이 넘어간다. 그리고 그에 대한 행동이 발생한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순간 거듭남을 체험했다. 그 충격은 곧 감각을 움직였고 이성을 움직였고 의지를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셨다. 따라서 성령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의

지성과 의지를 이끌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의가 무시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된 것이다.

이 논문을 이해하려면, 이와 같이 에드워즈의 거듭남의 경험을 알 필요가 있다. 로크의 사상이 에드워즈에게 매력을 준 것은 바로 본유관념의 없음과 인간 감각의 수동성 때문이었다. 이미 에드워즈는 이런 방식으로 거듭남을 체험했기 때문에 에드워즈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로크는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았기에, 그의 1차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말았다. 1차 성질을 본유관념으로 볼 것이냐, 감각으로 들어오는 외부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빠지고 말았다. 또한 단순관념이 어떻게 복합관념으로 나아가는 지에 대한 내적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경향성의 개념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법칙과 관계성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세계는 하나님의 경향성의 재현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옹계 규명해냈다.

이 논문은 비교적 초기에 쓰여진 것 같다. 로크와 비교한 부분까지는 잘 되

었지만, 에드워즈 목사님의 경향성 개념이 설명되지 않았기에, 에드워즈의 신 인식론의 설명이 부족하다(이에 관해서 이상현 교수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철학적 신학〉을 참고하면 좋다). 또한 중도언약을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으로 설명한 부분은 잘못 설명한 것 같다. 에드워즈는 중도언약을 따른 것이 아니라, 완전 언약을 따랐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독교 철학 이경직(천안대, 기독교 철학 전공)

I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는 18세기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가 탁월한 철학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프랑스 철학자 리옹에 따르면, 그는 미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형이상학자이다. 또한 에드워즈가 식민지 상태의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유럽 대륙에서 태어났으면 라이프니츠(Leibniz)와 칸트(Kant)를 잇는 철학자로서 불멸의 체계를 창시했을 것이다. (G. Lyon, *L'Idéalisme en Angleterre au

xviii^e siècle* (Paris, 1888), 406면 이하)
에드워즈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도 불린다. 당대에 물려받았던 기독교 신학의 전통을 새롭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의 바탕에는 예일 대학에서 공부한 데카르트주의, 존 로크의 인식론과 아이작 뉴턴의 광학, 캄브리지 플라톤 학파의 사상 등이 깔려 있었다. (S. H. Daniel, *The Philosophy of Jonathan Edwards: A Study of Divine Semiotics* (Bloomington/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68면)
예를 들어, 에드워즈에 따르면, 인간은 부족함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동기는 그렇지 않다.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행위는 충만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신플라톤주의의 유출설을 연상시킨다. (J. Piper, *The Supremacy of God in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Books, 1990), 76-77면)
그가 대학에서 접한 청교도 플라톤주의는 캄브리지 플라톤주의와 피터 라무스(Peter Ramus)의 플라톤주의에서

나왔다. 청교도 플라톤주의에 따르면, 영적 세계만 실제로 있으며, 눈에 보이는 우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계심을 깨닫는 데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창조하셨다. (A. A. Maurer, “Edwards, Jonathan”, in: P. Edwards (ed.),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2* (New York/London: MacMillan, 1967), 460면.)

또한 에드워즈는 예일 대학에서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을 통해 영국의 새로운 철학을, 특히 존 로크의 생각을 배웠다. 그는 로크의 *인간 오성론*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을 읽고 보물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이 시기는 그가 회심을 경험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는 종교적 진리의 척도가 가슴으로 느꼈느냐에 있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이 확신을 로크의 인식론을 통해 설명하려 했다. (Ibid., 460면; H. L. Bond, “Edwards, Jonathan (1703-1758)”,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and IX (Berlin/New York: de Gruyter, 1982), 299면, 301면.)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뇌치유상담 공감과 온정의 뇌, 전대상회의 기능이다(1)

손매남 박사의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손매남 박사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 12:15)
전대상회는 변연계와 전두엽 사이에 있는데, 신경학적인 심장

으로서 신에게 다정함(Loving)을 느끼는 뇌의 부위로 알려져 있다. 자극을 받으면 화를 내거나 겁을 먹는 충동을 억제한다. 전대상회는 사회적 상황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필수적인 많은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감지하고 갈등을 다루는 전략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우리의 불안이나 두려움, 죄책감이나 분노를 감소시키고 학습이나 기억, 집중적인 주위에 참여하기도 한다. 명상이나 관상기도는 전대상회의 활동을 자극한다.

그러나 관상기도나 깊은 명상(묵상)은 두정엽의 활동을 감소시키며 신과 합일화를 이룬다. 오순절 신자들이 방언을 하

거나 성령체험을 하면 두정엽 활동은 증가된다.

전대상회에는 폰 에코노모 뉴런(Von Economo Neuron)이라 불리는 방추형세포(Spindle-shaped Cell)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인간을 비롯, 유인원, 그리고 고래에서 발견된다. 이 뉴런들의 연결고리는 뇌의 다른 부분과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고, 느낌, 그리고 행동을 통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발달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뉴런들은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감정으로 인도한다.

방추형 세포는 출생 후 출현하고 경험 의존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관계의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매혹적인 세포이다.

어린 시절 방치나 스트레스 외상은 방추형 세포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이 뉴런들의 기능이 저하되지만 사랑, 소통, 그리고 감각 및 지적 자극이 풍부한 데 자신을 노출시키면 폰 에코노모 뉴런과 전측대상회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동시에 전대상회의 활동을 자극한다. 그래서 영적 수행은 전대상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인식과 온정을 강화시킨다. 또한 폰 에코노모 뉴런은 알츠하이머병과



명상과 영적수행은 전대상회를 자극하는 전두엽을 강화시키며, 의식적으로 더 큰 목표와 평온함을 이루게 한다. ©pexels

다른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퇴화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하루에 단 12분간의 명상을 수행한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는 영적수행이 희귀한 이 영장류 뉴런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대상회는 전두엽과 변연계 사이의 활동을 조절하고 균형을 이루는 일종의 받침점 역할을 한다. 공포를 일으키는 편도체를 포함하고 있는 감정중추의 변연계



전대상회의 뉴런들의 연결고리는 우리의 사고, 느낌, 행동을 통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발달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뉴런들은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감정으로 인도한다. ©stockcake

는 논리, 이성,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지닌 전두엽 간의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전대상회는 인지와 정서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인지적 융통성을 발휘한다.

변연계와 전두엽 사이 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 전대상회는 느낌과 사고의 균형을 맞추는 받침대 역할을 한다.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변연계로 혈액이 들어가서 편도체의 경계심, 방어력, 그리고 공포심을 자극한다. 마치 시소처럼 변연계에서

도체 활동을 느끼게 만든다. 따라서 논리와 이성이 분노와 공포를 가라앉힌다. 이러한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가상 시소의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전대상회가 손상을 입게 되면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함묵증이 생길 수 있으며 모성행동이나 표현력이 감소되고 정서가 불안정하고 충동성이나 과잉행동을 하게 된다.

전대상회가 뇌졸중, 병변 등으로 손상되거나 심지어 지나치게 흥분되면 모든 것이 균형을 잃게 된다. 따라서 명상과 영적수행과 같은 내적 인도자를 양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명상과 영적수행은 전대상회를 자극하는 전두엽을 강화시키며, 이를 통해 의식적으로 더 큰 목표와 평온함을 이루어 삶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전대상회 회로가 강화되면 불안, 우울증, 그리고 분노를 억제할 수 있다. <계속>

◆ 손매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경기도 뇌심리상담전문연구원 원장
美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국제뇌치유상담학회 회장

건강상식

이갈이 방지장치 잘써야 효과

이 갈이는 치아의 분열의 가능한 음식을 씹는 저작기능과는 동떨어진 부기능적인 습관(parafunctional habit)으로서, 이 악물기(clenching)와 이를 가는 현상(bruxism)을 모두 포함한다.

이 갈이는 대부분 수면 중에 일어나지만 특정 신경성 질환이나 운동장애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 할 수 있다.

이 갈이의 심각성은 평상시 음식을 씹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의 과도한 교합력이 치아와 턱관절에 가해질 수 있다는데 있다. 이런 이 갈이로 인해 치아가 헤어져 달게 되는 교모 현상,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교근 및 측두근의 근육성 통증, 두통, 턱관절통, 아침에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개구제한 등의 치과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이 갈이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환자 본인이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무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어도 낮 동안이라도 이런 부기능을 하지 않도록 주지하여야 한다. 또, 평상시 저작근육을 이완시키도록 꾸준한 운동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교합안정장치 (splint·이 갈이 방지장치, 나이트가드) 치료이다. 수면 중에 이 갈이가 일어나는 환자의 경우,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방법이 교합안정장치이다. 그러나 이 장치를 착용한다고 해서 이 갈이가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의는 이 갈이나 이 악물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과적인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으며, 이 갈이로 인해 야기되는 두통이나 턱관절 질환, 관절염 등을 경감시키는 데 있다.

또한, 이 갈이 방지장치로 점진적인 치아교모, 치아파절, 치수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이 갈이 장치는 턱관절을 안정화시키고 치아를 보호하며, 거상근을 이완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장기간에 사용하는 경우 교합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되도록 야간 수면시간 정도만 착용하는 것을 권한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마우스피스 같은 말랑말랑한 이 갈이 방지장치인 연성장치(soft appliance)는 연구치가 맹출 중인 경우나 교합안정장치 장착 전 일시적인 사용을 제외하고는 별로 권장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몇몇 연구에서 이런 연성장치가 오히려 이 악물기 습관을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보톡스 주사 요법이다. 이 갈이 방지장치를 사용해도 장치를 파절시킬 정도로 심한 이 갈이나, 중추성 장애에 의한 이 갈이의 경우 이 갈이 활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근 또는 측두근 같은 이 갈이 시 강하게 수축 작용하는 저작근육에 3-6개월마다 보톡스를 주사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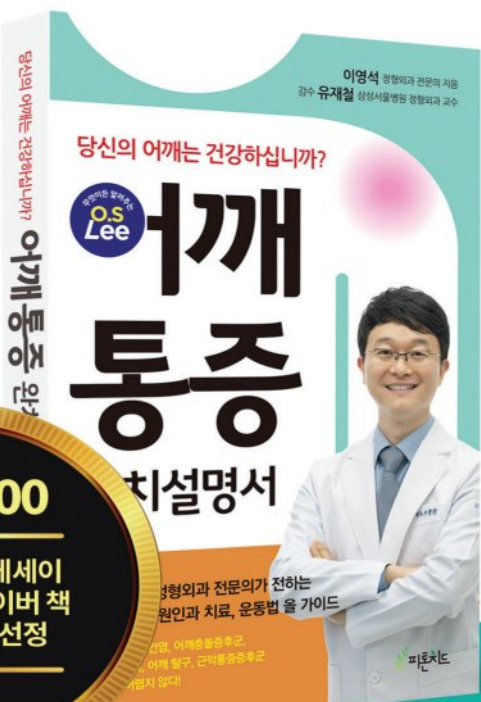
류성용 뉴연세치과 대표원장

은혜 한 장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교회오빠 사렘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3)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미 죽었을지라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나에게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데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깨닫게 하여 내 아들을 죽게 하였습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정죄하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내가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지요 왜 깨닫게 하시나요 정죄하기 위해서는 깨닫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사람 받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렘다 과부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보면서도 신령한 세계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에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가 가져 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왜 엘리야는 다락방에 거했을까요 물론 아래층이 있고 위에 층이 있으니까 다락이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생활이 항상 다락에 있어야 합니다.

다락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기는 살면서도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락에 있는 생활이나 엘리야는 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락에 올라가서 죽은 아이 몸 위에 세 번 엎드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 세 번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한 번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 속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씩을 그 아이에게 주게 하십니다. 이 말씀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주게 하셨지 준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준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주게 하신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자식을 낳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을 못 낳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엘리야에게 이 세 가지 생명이 있으니까 세 가지 생명이 살아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엘리야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엘리야에게 무슨 세 가지 생명이 있느냐 엘리야 속에는 태초의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아들의 영이 엘리야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을 주실 때에는 미리 아신 자로 지으심 받은 택자가 된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롬8:29)

두 번째로는 그 아들 예수로 구원해 주신 구원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텐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고 함께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로 지으셨기에 이제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도 구원해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이 내게 있고.(요1:50)

세 번째로는 구원해 주신 그 영에다가 육신으로 나에게 임해 세상에 보내셨기에 복음으로 불러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하늘나라의 영광된 열매 맺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또 있습니다.

몇 가지 생명이거나 첫 번째는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도 이루신 영원한 구원이 있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이루시는 영원한 영광 세 가지 생명이 엘리야에게 있으니까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십니다.

오늘 교역자들에게 세 가지 생명이 있어야 교인들을 살릴 수 있고 교역자들이 이 세 가지 생명이 없다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참고◆

엘리사는 수넬 여자의 집에 가서 있을 때에 그 아들이 또 죽었지요 그런데 몇 번 엎드려 기도 했나요 엘리야는 세 번 엎드려 기도 했고 엘리사는 두 번 엎드려

기도 했습니다.(왕하4:34-35)

왜 그러느냐 이 사렘다 과부의 아들은 엘리야가 가기 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수넬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가 가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사느냐라 그래서 두 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기도 했나요 하나님이며 이 아이가 죽었사오니 살려 주시옵소서 육신 살려 주실 것을 구했나요 혼이 돌아오게 해 달라고 기도 했나요 혼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몸 셋이 합하여 사람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아들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영에다가 육신을 임해 주실 때에 혼도 주셨습니다.

혼은 육신 임해 주실 때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 혼은 영으로 보게 하신 것을 깨닫는 마음을 말합니다.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비둘기의 마음은 공방에 가 있으니까 몸은 여가에 있는 것 그게 혼입니다. 마음의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영의 세계는 말고 육의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것이 됩니까? 육의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것은 전기가 빠릅니까? 빛이 빠릅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 제일 빠릅니다.

왜 마음의 생각이 제일 빠르다고 하나냐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나서 한국에 와 있다면 눈감을 때마다 하루에 미국 몇 번이나 갔다 올까요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미국 가는데 몇 시간 걸리고 오는데 몇 시간 걸리고 시간이 없지요 저는 평양에서 낳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평양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혼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지능을 말합니다. 영이 살아 있을 때에 혼도 사는 것입니다. 또 영과 혼이 살 때에 몸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 보니까 혼이 떠나 있지요 혼이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깨닫는 혼이 이미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고 너희들에게 가루 떡을 주시는 것도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하늘나라의 영광된 그 열매 맺게 하신 그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꼬박 꼬박 먹으면서도 모르고 있으니까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때는 벌써 떠나 있지요 그것을 깨닫는 혼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서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겻세마네 동산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따로 데리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얼마쯤 나가서 기도 하셨다 하였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 던질 만큼 나가서라 하셨지요 왜 돌 던질 만큼이라고 했느냐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도리어 돌을 던지는 자가 되고 마느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고 와 보니까 그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럼 처음부터 잠이나 자자하고 잤을까요 그래도 기도한다고 몇 마디 하다가 잠들었지요 그러면 기도할 때부터 잠꼬대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잠꼬대했느냐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였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대로 그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며 우리 선생님 예수님 오늘 꼭 유대 나라 왕이 될 때에 하나는 우편에 앉고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과 야고보도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꼬대입니까? 기도입니까? 잠꼬대들 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혼이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내게 배푸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할 것이 아닙니까? 그 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혼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살았다 이제 어떠한 몸으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영광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몸으로 살아났느냐 몸이 살아야 사는 것이고 열매가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열매 없는 죽음이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과 물결이 일어났지요 그때 예수님은 산에 가시고 제자들만 먼저 보냈는데 지금 물결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물위로 걸어요합니다.(막6:49) <계속>

창글산 봉목사 제공

이야기하늘나라

멸종된 공룡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지구에 존재하기 전에 파충류에 속하는 맘모스와 공룡 같은 큰 짐승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짐승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멸종되어 뼈만 여기저기에서 발견될 뿐입니다. 그래서 뉴욕 박물관에 가 보면 옛날의 큰 공룡의 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약하게 보이던 짐승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리와 개는 같은 종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리 가운데 어떤 종류가 성

질이 변하여 온순해져서 개가 되었습니 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포악한 이리가 흔하지 않습니다. 혹 동물원에 가 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질이 변해서 온유하게 된 개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얼른 듣기에는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원리를 여러 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리와 같이 포악한 히틀러, 무솔솔리니, 스탈린도 온 세계를 끝까지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닷컴 제공



한국도로공사 창립 55주년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국가경제와 함께 성장한 한국도로공사는
국민 생활상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매일 500만대가 이용하는 행복한 고속도로,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ex 한국도로공사

교회 성가대원 모집



Chris Titko

대부분의 성가대 지휘자는 성가대가 어떻게 하면 활력 있고 번창할지에 대해 고심한다. 이 고심은 새로운 성가대원을 모집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신선하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도전이며 때로는 사역 성장을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것이 지루할 수 있다.

다음은 사역에 투자하고 중요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이다.

일대일 교류

누군가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큰 선물이다. 성가대에 개인적으로 예비 성가대원들을 초대하는 것은 매우 귀중하다. 대부분의 성가대원들은 자신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 사람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사역의 맥락과 예배에서 합창단의 역할에 두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의 의미를 더 깊은 수준으로 가져온다. 사람들에게 자신과 그들의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집방법

모든 대원이 한 명씩 데려오기 - 모든 성가대원이 연습에 최소 한 사람을 데려오도록 연습 날짜 또는 요일을 지정한 다. 연습 시간이 재미있게 느껴지도록 계획하고, 열심히 지휘자의 직분을 감당하여 성가대원들(또는 예비 성가대원들)이 성가대를 통해 자신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기도와 헌신의 시간을 가지라. 발성연습 등의 위망업을 하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연습을 위해 모든 요소의 균형을 유지하라. 마지막에 찬목을 도모하고 신규 대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교제 시간을 가지라.

대립절과 성탄절, 종려 주일과 부활절과 같은 더 큰 교회 행사에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라 - 예비 성가대원들에게 성가대에 4주에서 6주 동안 함께 찬양하자고 요청하는 것은 사람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이것은 또한 새로운 대원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가대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점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관계 - 교회의 사역자, 교인 및 성가대원과의 좋은 관계는 새로운 성가대원 모

집에 도움이 된다. 사람들이 당신과의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회원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역자들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그들에게서 당신이 제공하는 다양한 섬김에 대한 피드백과, 예비성가대원인 회중들에 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교회 사역자들과의 원만한 관계는 성가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필수적이다. 당신이 성가대원 모집을 위해 모든 교인을 직접 만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며 교제해야 한다면 염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방문 - 언젠가 작곡가 Hal Hopson은 자신과 그의 아내가 모든 성가대원과 예비 성가대원을 어떻게 심방하는가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훌륭한 성가대 리더라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 나는 이 상호작용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성가 연습 시간에는 의미 있는 교제를 위한 시간이 거의 없으므로 성가대 연습 시간 외에 소수의 성가대원들과 돌아가며 시간을 따로 내어 교제를 하는 것은 사역을 길게 볼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사람들을 따로 만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

다. 그럴 경우에, 대화를 열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명확하고 정기적으로 의사소통 - 새로운 성가대원 모집을 위해 이메일, 문자 또는 카카오톡 및 교회 주보 광고를 이용하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는 성가대원들과 예비 성가대원들에게 성가대 참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인지 알리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마치 성가대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엇을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해야 한다. 모든 대원들은 귀하고, 귀하게 여겨질 권리가 있다. 대원들에게 성가대 외의 다른 공동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와 함께 경험하도록 초대하여 그들이 귀한 동역자임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성가대 연습 참여 기회 - 사람들이 성가대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면 다양한 연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만일 모두가 성가대 연습으로 수요일 저녁 8시에 모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많은 대원들이 그 시간에 자녀 양육이나 직장, 학교 시간으로 인해 연습에서 소외될 수 있다. 우리 찬양 공동체에 여러 세대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대원들이 최대한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로 연습을 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현대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의 일부이다. 시대는 변하는데, 연습 시간 등에 있어 옛날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새로운

대원들이 우리의 성가대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성가 연습 중 양질의 자녀 돌봄 - 당신의 성가대에 젊은 세대를 원한다면 아기들뿐만 아니라 유아, 초등학교 연령대를 위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성가대에 따라 아이들 돌봄 인원이 두 명이 될 수도 있다. 영유아를 돌볼 사람과, 초등학교생을 돌볼 사람 이렇게 두 명이다. 성가대에 참여하는 부모에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준비해 오라고 격려하면 더 수월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

만일 대낮에 성가 연습을 하는 경우에 이 돌봄 기회 제공은 더욱 중요하다.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에서 벗어나 노래를 부르는 1시간 30분은 대원들에게 단비와 같은 선물일 수 있다. 성가대 연습 때까지이 도울 수 있는 한두 명의 권사님들을 설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 섬김은 젊은 세대가 음악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킨다.

음악의 질과 긍정적인 태도 - 행복한 성가대원과의 즐거운 시간은 고품질 음악

사역의 일부이다.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함께 고전곡과 현대곡, 빠르고 느린 곡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음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양한 스타일로 움직인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선호를 강요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들의 예배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스타일을 일부러 할 필요도 없지만, 편안한 틀에 갇히지도 말아야 한다.

맺는말 - 당신은 성가대원들에게 목양의 의무가 있다. 나는 항상 성가대 뒤에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주는 모습을 상상한다. 나는 깃발을 들고 “나를 따라와”라고 말해야 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당신과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사명에는 음악적, 영적 목표를 함께 가지고 길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의미 있는 예배를 인도하도록 대원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종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 Chris Titko

J.W.Pepper의 교회 편집자를 역임했다. Pepper에서 일하기 전에 Chris는 미국 전역의 다양한 교회에서 35년을 섬겼다. 그는 Westminster Choir College에서 종교 음악 학위를, 인디애나 대학교 블루밍턴에서 합창 지휘 학위를 받았으며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더 밟았다. 현재 버지니아 주 포트머스에 있는 Monumental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Lindauer Endowed Music and Fine Arts 의장으로 섬기고 있다.

성가대에 젊은 성도를 유입하기 위한 제안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가대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교회 성가대는 더 젊은 층의 대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며 차세대를 위해 활기찬 성가대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 젊은 층의 합류는 단순한 성가대 부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대를 이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에 신선하고 역동적인 선율을 울리게 할 기회이다. 그럼 어떻게 젊은 성도들을 성가대로 유입시킬 수 있을까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환영하는 분위기 조성: 나이를 초월한 음악 공동체

성가대는 어떤 한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세대를 초월하는 음악적 가족 공동체이다. 젊은 층이 자신들이 존중받고 포용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휘자는 이 소속감을 유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

는 데 적합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젊은 층만 환영하다가 자칫 기존의 나이 든 성가대원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맞춤형 선곡: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의 조화

젊은 층의 다양한 음악적 취향을 고려하여, 지휘자는 성가대원들과 협력하여 전통적인 찬송가와 현대적인 노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레퍼토리로 구성해야 한다. 지휘자의 선곡을 반찬에 비유할 수 있다. 성도들이나 성가대에게 편식을 하게끔 하면 안 된다. 늘 먹는 익숙한 반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음식, 전통적인 음식, 간편식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면서도 영양의 균형이 잡힌 테이블이 중요하듯이, 성가대에서 부르는 찬양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리듬 주도적인 곡, 선율이 아름다운 곡, 현대곡, 전통곡 등 선곡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2주 정도 느린 곡을 불렀다면 그다음 주

는 빠른 곡으로 선곡하고, 단순한 화성이 추가 되는 편안한 찬양을 불렀다면, 그다음 곡으로는 좀 더 화려한 화성진행이 담긴 곡을 고려할 수 있다. 필자는 교회에서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데, 매월 첫 주 주일은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리듬이 주도적인 곡이나, 현대적인 화성 진행이 추가되는 곡을 선곡하여 찬양을 드린다. 예배에 함께한 청년들이나 젊은 성도들이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며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곡을 하고 있다. 젊은 층을 성가대로 끌기 위해서 지휘자는 젊은 세대의 취향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요즘 청년들은 어떤 찬양을 주로 듣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 늘 새로운 시대의 음악에 노출되어 뒤처지지 않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유연한 연습과 현대 기술 사용

현대 생활의 요구를 이해하여, 유연한 연습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젊은 층은 바

쁜 직장 및 학업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 모두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연습시간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우리 성가대는 다른 중소교회에 비해 비교적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은 편이다. 가끔 이들은 친정(혹은 처가) 등의 집안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예배는 드리더라도 이후 연습에는 출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연습에 참여 못하는 성가대원들을 위해, 우리 성가대는 연습시간 실황을 녹음한다. 연습하는 곡마다 따로 녹음하여 성가대 단체대화방에 음성파일을 공유하고, 각 파트에서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따로 파트 녹음을 하여 파트방에 올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중에 연습을 따로 할 수 있고, 고정된 연습시간에 부득이하게 참여 못 할 시에 받는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덜 수 있다.

4. 지휘자와 청년 및 젊은 성도들 간의 유대관계 구축

성가대 내에 젊은 층이 더 많아지길 원한다면 지휘자가 젊은 층과 친하게 지내며 그들과의 신뢰와 협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청년들이(청년예배와 연습시간이

겹치는 등의 이유로) 성가대에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교회의 큰 행사, 예를 들어 칸타타 등에 함께 참여해 주기를 독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필자는 현재 섬기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첫해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 먼저 상의를 한 뒤 청년부 광고시간에 가서 칸타타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참여하라고 따로 광고를 내었고, 다섯 명의 청년이 그해에 함께 하였다. 그 후로 악기로, 또는 노래로 꾸준히 참여하는 청년이 생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친교를 나누었다.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모두 참석하였으며 결혼을 함과 동시에 바로 성가대로 이끌어 올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젊은 성도와 오랜 기간 동안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다면 자연스럽게 성가대로의 유입이 가능할 것이다. 성가대원들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지휘자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젊은 성도들을 성가대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청년들과 젊은 장년층이 환영받을 환경과, 음악에 대해 공유된 열정을 기반으로 그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음악과,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더 젊어지고 새로워지는 성가대를 꿈꿔본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스런 여정에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김지연

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작곡과 박사학위를 받고,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회음악을 2년간 공부하였다. 교회음악분야에서 작곡 및 지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오케스트라 편곡을 주로 하고있다. 현재 상명대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음악이론과목을 가르치는 책임강사로 있으며, 예배음악웹매거진의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음대에서 배우는 Music Theory(예술출판사)>의 저자이다.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롯데지주·구세군, ‘조손 가꿈’ 사업 완공 기념식 성료

롯데지주와 구세군은 최근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농어촌 조손가정을 지원하는 ‘조손 가꿈’ 사업의 완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조손 가꿈’은 전국 농어촌 지역 조손가정 50가정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부모와 손자녀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추억 여행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년층과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조손가정의 복지 공백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기념식에는 롯데지주 박왕근 전무와

구세군 김일동 총서지방장관이 참석해 세롭게 단장된 가정에 현판을 전달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를 격려했다. 롯데지주 박왕근 전무는 “처음 진행된 이번 사업이 조손가정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롯데만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일동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 돕는 일은 구세군의 중요한 나눔 사업이다. 롯데와 함께 뜻을 같이 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새 주거 지원을 받은 한 김이슬(가명) 아들은 “집이 깨끗하고 밝아져서 좋고, 새 책상도 생겨서 기쁘다. 따뜻한 웃과 예쁜 가방 선물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웃음을 지었다.

한편, 롯데지주와 구세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복지 공백을 지원하는 ‘채움’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채움’ 사업은 신혼부부 대상 ‘생명 틈을 키트’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생명 틈을’ 사업, 그리고 조손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조손 가꿈’ 사업으로 나



‘조손 가꿈’ 사업 완공 기념식 현장의 모습. ©구세군

누어 농어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사)디엠지 피스, 제2회 정기총회 개최

(사)디엠지 피스(DMZ Peace)가 최근 신한대학교 믿음관 3층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장한일 상임이사(국회조찬기도회)의 사회로 2024년 결산 및 사업보고와 함께 2025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강성종 이사장(디엠지 피스, 신한대 총장)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과 냉전의 상징인 DMZ에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비전센터 설립을 위한 비전선포와 함께 문화와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평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강 이사장은 “2025년에는 DMZ가 이 땅에 살림의 꽃을 피어 세상의 모든 분쟁과 갈등이 종식될 수 있는 평화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란다”며 “Dynamic MZ(DMZ) 축제(세계평화손

편지쓰기대회)를 통해 다음세대들에게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생명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DMZP 포럼(심포지엄)을 신한대 인문도시사업단과의 협력으로 개최해 평화와 DMZ 생태계보호 국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총회에서는 또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DMZ 마태비전을 청년 및 시민 교육을 통해 확산하고 DMZ를 통한 평화운동을 위해 다양한 NGO 기관과 협력하기로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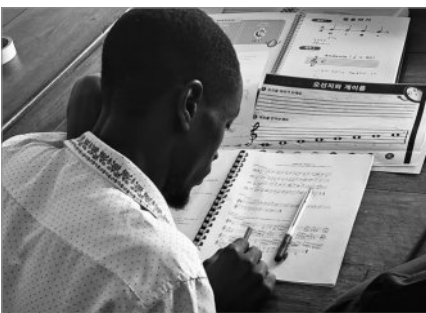
이날 총회와 이사회에서 이현주 사무총장이 2024~2025 수입지출 예산산기 보고와 최에스터 다음세대위원장의 2024년, 장한일 상임이사(정책위원장)가 2025년 사업과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김진영 기자



(사)디엠지 피스 제2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디엠지 피스

실로암인터내셔널, 탄자니아서 음악 점자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



음악 점자 교육 현장 ©단체 측 제공

실로암인터내셔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2023-2025 탄자니아 시각장애학생 교육 접근성 향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탄자니아 점자교과서 제작을 위한 현지 음악 점자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된 음악 점자 교육은 탄자니아 점자교과서 제작을 위한 현지 점자

출판시설 점역사 및 교정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악보에 대한 이해부터 음악 점자로 점역하는 방법까지 이론과 실습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탄자니아의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음악 교과서를 악보로 제작, 시각장애 학생들이 음악을 쉽게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2월 17일부터 18일에는 탄자니아 모로고로 지역 내 중등학교 3곳을 방문

하여 약 2,040명을 대상으로 장애, 비장애 학생에게 인식 개선 교육을 제공했다.

시각장애 당사자이기도 한 실로암인터내셔널 최동은 부회장은 “올바른 가치관을 통해 장애를 딛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탄자니아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나라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40 하나님의 시선	5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132회) 30 TV강단 (하늘빛광성 박경수)	00 성지가 좋다(472회) - 사도바울의 4차 전도여행 / 디도 기념교회 30 복음강단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6:00	00 새벽을 말함과 함께-이수훈 목사(담진동일교회) 30 생명의 말씀-이강평 목사(예수사랑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선교의 땅 탄자니아를 가다	10 [말씀]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5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00 생명의 양식 (정운 유성택) 30 말씀의 능력 (전태석)(520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82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언스 - 신약(6회)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백용현 목사(대전한빛교회) 50 생명의 말씀-이기웅 목사(영광제일교회)	20 말씀의 생터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 50 말씀의 생터 은누리비전교회 김동국 목사	30 병하의 일각 - 야외수업	20 주만찬(29회) 40 오늘 만나는 큐티(96회)	00 청주금천교회 주일예배상황 (신경민 목사)
	8:00	20 신앙예세이 30 [생방송] 오늘의 정원	20 선교의 땅 가나를 가다 50 체인지 더 월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00 찬양예배 - 주님께 맡기는 시간(1524회)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238회) - 사도행전 13장	00 만나 위심 (김병삼 목사)
	9:00	20 내가 매일 기쁘게	5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성수 목사	0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	10 새롭게하소서(11254회) - 다니엘 김 목사 1부	00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 차록(60회) - 성경시대 법과 제도 30 성지가 좋다(472회) - 사도바울의 4차 전도여행 / 디도 기념교회
	10:00	10 위대한 발견들 25 더 초존 [미리보기] 40 사인사채	30 말씀의 생터 든든한교회 장형희 목사	20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	00 CBS NEWS 10 20 흘러간 내찍(5회)	00 내 삶의 행복(145회) 50 김한기 목사의 상한 심령의 치유(113회)
오후	11:00	10 7000마리를 - 예수사랑여기에	00 GOODTV 진리의 시간 백석대학교 장충현 총장 30 비전설교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50 GOODTV 정오의 기도	1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50 레알캠핑	20 성서 700 도시여행(4회)	00 소문난 성경교실(435회) - 오택현 교수: 첫 번째 9강 왕들을 평가하다 (아람과 이세벨) 30 예루살렘 데이터라인(465회) 50 복음강단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
	12:00	00 CTS 뉴스 20 신앙예세이 30 생명의 말씀-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00 마음을 나누다 이심점심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생터 풍성한교회 김성곤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이인호 목사(다사랑의교회)	00 감시대 화요채플(20회) 30 TV강단 (포이예대예수 신우인)	20 말씀의 창 (온정감리교회 최상일 목사) 50 비전메시지 (큰문혜교회 이규호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양병희 목사(영안교회) 30 백세특강	00 비전설교 중앙성결교회 한기재 목사 30 황덕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울포원(611회)	30 비전메시지 (청주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GOODTV 특별강준 2024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말씀의 힘 (수원목양 유태민) 30 새롭게하소서(10974회) - 박석익 대표	00 김삼환 목사의 칠 년을 하루같이(102회) 40 C채널 매거진 굿데이(263회)
	15:00	40 7000마리를 - 예수사랑여기에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0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3191회) - 창세기 48장	00 2025 명성교회 3월 특별새벽집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언스 - 구약
	16:00	30 생명의 말씀-이재희 목사(분당햇빛교회)	00 세계테마기행0 40 말씀의 생터 중만한교회 임다윗 목사	00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 5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	1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4 다니엘 기도회(20회) 5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79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심 (감하나 목사)
저녁	17:00	00 수영로의 시간-이규현 목사 50 빛으로 소금으로	20 말씀의 생터 평택성원교회 박춘권 목사 5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30 [말씀] 박신웅 목사(얼바인은누리교회)	50 영혼의 양식 (구세군대한병원)	00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7회)
	18:00	00 생명의 말씀-정영교 목사(산본양문교회) 30 말쓰노트 40 CTS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20 아베스의 기도 50 더 메시지	10 휴먼네트 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TV강단 (용인송전 권준호) 30 TV강단 (여의도침례 국명호)	00 말씀의 창 (홀리씨즈교회 사대천 목사) 30 말씀의 창 (든든한교회 장형희 목사)
	19:00	30 더 메시지 시즌2	0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장미비	30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2	00 이영훈 목사의 땅끝까지 복음을(547회) 30 TV강단 (용인비전 신용수)	00 비전메시지 (개령교회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
	20:00	20 힐링송 30 생명의 말씀-김의철 목사(송도가나안교회)	00 힐링스토리 10 말씀의 생터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40 GOODTV 저녁의 기도 5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감동처럼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선한목자교회- 40 네답게-회복프로젝트	00 CBS 비전특강 - 윤자복 목사의 중말론 특강 50 크리스천칼럼 (인천제일 이재철)	0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239회) 10 복음강단 (오송하늘문교회 이재수 목사) 40 말씀의 창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
	21: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CTS 뉴스	2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감동처럼 50 GOODTV 뉴스	00 성당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4238회) - 사도행전 13장 50 살롬 살롬(35회)	10 예루살렘 데이터라인(465회)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110회)
	22:00	20 [드라마] 더 초존	10 예수 더 라이프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병하의 일각 - 야외수업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254회) - 다니엘 김 목사 1부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264회) 20 소문난 성경교실(432회) - 오택현 교수: 첫 번째 6강 왕들을 평가하다 (느밋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언스 - 구약(20회)
	23:00	20 위대한 발견들 30 사인사채	00 리바이츠 헤리티지 10 GOODTV 특별강준 2024 다니엘 기도회	00 카일 아이들만의 로마서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10 예수를 만난 사람들(5회)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199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말씀의 생터 물맷돌교회 안호성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반대효 목사(방주교회)	0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2회) 10 성서 700 도시여행(4회)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94회)	00 한소말교회 한밤의 기도회(53회) 40 예루살렘 데이터라인(465회)
	1:00	00 오늘의 정원 50 [워킹온다바이블]성경의 땅	10 말씀의 생터 순복음중동교회 김경문 목사 40 GOODTV 시메라 마가복음 1부	0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 4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00 소망의 말씀 (김경진)(270회) 40 CBS 비전특강 - 윤자복 목사의 중말론 특강	00 THE 깊이 공금한 신앙, 물랐던 이야기 성지편(9회)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나눔 <주님은 나의 최고봉>
	2:00	10 내가 매일 기쁘게	10 GOODTV 특별강준	20 [말씀] 김형서 목사(지구촌교회)	30 TV강단 (승리 박규성)	00 선교는 지금 2(9회)
	3:00	00 다시보는 [CTS WEEK] 50 힐링스토리	10 예수 더 라이프	00 [Global Sermon] Kyle Idleman's Romans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	00 울포원(194회)	00 만나 U(9회)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20 오늘의 양식 30 내 영혼의 찬양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237회) - 요한계시록 56장 50 CBS 교회사식(988회)	0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4회) -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나눔 <주님은 나의 최고봉>(115회)

DOOSAN

소형 건설물류장비의 세계적인 이름 밥캣은 두산의 브랜드입니다

WE ARE DOOSAN

**Bobcat**